

기독일보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음력 2월 3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1494호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2천명과 예배드려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신천지와 무관"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 한 명은 이 교회 부목사이다. 수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여서 자칫 확진자가 대량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목사가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한 뒤인 지난 16일 교회에서 약 2천명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교회 교구 부목사와 교인 5명이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청은 25일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의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이들 중 2명(부목사와 그의 처조카)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 측에 따르면 2명 중 처조카는 교인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이 부목사는 대남병원 방문 이틀 후인 지난 16일 이 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교회 측은 그러나 부목사의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중"이라며 "곧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청은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며 "명성교회 측과 현장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성교회는 25일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당분간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TF팀을 조직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교회 전체 교역자 약 8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코로나19 확진자인) 교역자(부목사)는 상을 당한 성도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다"며 "신천지를 비롯한 어떤 이단 세력과도 연관된 일이 없다"고 했다.

교회 측은 이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결의 사항을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후 신천지 교인들의 교회 잠입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회는 또 "1980년 7월 6일 교회 창립 이후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해 온 특별새벽집회를 (당초) 금년 3월에서 무기한 연기한다"고도 알렸다.

아울러 "다른 확진자 1명은 2월 17일 귀국해 함께 거주하던 해당 교역자의 지인"이라며 "명성교회에 다녀간 이력이나 성도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대구 남구청장의 '눈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남구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조재구 남구청장의 건의사항을 담은 편지를 받고 있다. 조 구청장은 구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에게 눈물을 보이며 지원을 호소했는데, 그는 대구남구청 재정이 전국서 하위권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구청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알겠다, 힘내시라"고 했다. ⓒ 뉴시스

온천교회 감염원, '잠입'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

교회 비상대책팀, "합리적 의심 정황 포착"

부산 온천교회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천교회 비상대책팀 한 관계자는 25일 크리스천투데이에 "확진자들 중 몇 사람이 신천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에게 양심선언을 요청했지만 아직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교회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확진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천지 관련자로 파악되고 있다"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최초 확진자(19)의 아버지가 우한 교민이어서, 감염원이 아버지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지난 22일 재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신천지 잠입'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아직 그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면서도 "온천교회와 일부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사와 조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온천교회 연관 환진자는 22명으로 부산 전체 확진자(38명)의 57.9%를 차지한다. 신천지 연관된 환진자는 4명(10.5%)이다.

부산 온천교회는 21일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한 후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으며, 성도들이 전원 자가 격리됐다. 이후 주일인 23일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담임 노정각 목사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교 영상을 녹화했다. 현재 온천교회는 성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도 내린 상태다. 김진영 기자

"과천 신천지 명단 확보까지 철수금지"

경기도, 25일 신천지교회 과천본부 강제역학조사

신천지교회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신도 명단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도 이날 신천지교회 과천본부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방문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쟁 상황이다"라며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는 지난 16일 신도 1만명이 집결한 과천 예배의 참석자 명단을 얻기 위해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교회 과천본부 현장에는 역학조사관 2명을 포함한 조사반 25명과 지원반 20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고, 신천지 측은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했다.

신천지 측은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명단을 지문인식 등 디지털 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신천지 측이 보유한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앞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강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천지 과천 교회 예배는 대구 집단감염원인으로 지목된 집회(9336명)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라며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신천지교회 과천본부 대규모 예배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참석자가 2명(서울 서초구·경기 안양시 거주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다예 기자

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서울시가 25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와 제례 등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 263개소 소재지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188개소는 강제 폐쇄와 방역이 완료됐다. 60여개소는 아직까지 시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후 계속적인 조사와 현장확인 통해 신천지 교회를 강제폐쇄하고 방역을 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제보 조사와 점검을 위해 신천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서울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 받는 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유증상 여부, 대구집회 참석 여부, 최근 집회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체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중앙정부에서 신천지 교도 전체 명단이 서울시로 송부되면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민욱 기자

신천지 포비아… 무엇이 '수퍼 전파자' 되게 했나 » 2면

PCUSA, "코로나19 치유 위해 기도" » 6면

"박해 트라우마 극복 못 하면 지원도 한계" » 7면



"진심 담긴 사과 했으니 쿨하게" » 21면

한교연, 전광훈 목사 구속 불구 한기총과 통합 추진

세부일정은 대표회장과 통추위에 위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25일 오전 군포제일교회에서 개최한 제9-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 같이 결의한 뒤 세부사항은 권태진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통추위는 3인의 상임회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한교연 제9-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에 따르면 양 기관 대표회장은 이미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통합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24일 밤 전격 구속됨에 따라 이날 총회에선 통합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임원회에서 가입 심사를 통과한 4개 교단 및 4개 단체의 최종 승인은 권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신천지 포비아… 무엇이 '수퍼 전파자' 되게 했나

각 자자체, 교인 및 시설 소재 파악에 사활
뒤늦은 "신천지" 커밍아웃, 방역 장애물로
교계엔 '추수꾼' 경계령… "실체 드러나야"

신천지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신천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천지 교인들의 동선과 소재 파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관내 신천지 시설 폐쇄를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정체를 숨기다 뒤늦게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실토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신천지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 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던 팀장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신천지 교인 2차 명단에 있었다. 이에 대구시가 자가격리를 권고하자 본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고백했다는 것. 이후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딸이 수술 후에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털어놓은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술에 참여했거나 같은 병동에 있었던 의사 및 간호사들이 곧바로 격리 조치됐고, 수술실과 병동도 폐쇄됐다.

"신천지가 정체를 숨긴다"는 우려는 지난 18일 31번 환자가 대구 신천지 측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신천지는 '일부의 일탈'이라며 부인하긴 했으나, 이들이 거짓 대응을 종용하며 신도를 단속한 정황은, 이후 위 사례와 같은 일들이 알려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된 후, 신분을 위장한 채 지역 교회로 잠입한다고 알려지면서 각 교회들은 더욱 경계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최근 다수의 확진자와 연관된 부산 온천교회의 감염원도 정체를 숨기고 이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숨어들어 마치 정상적인 교인인 양 행세하다 은밀히 다른 교인들에 접근해 그들을 미혹하고 포섭하는 소위 '추수' 행위를 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신천지의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은밀히 가려졌던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무엇보다 수많은 이들을 호린 교주 이만희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교회가 지난 23일 주일예배 당시 교회 출입문에 단 '신천지 아웃' 스티커 ©사랑의교회

신천지 과천본부 강제역학조사

이재명 "최근 집결 확인,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
…전국 1,125곳 폐쇄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긴급 강제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4일 14일간 △경기도내 실내외의 신천지 집회 금지 △공식시설을 비롯한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 불문 신천지 교회의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에서 패쇄된 신천지 시설은 경기 353곳을 비롯해, 서울(169), 광주(95), 강원(74), 인천(65), 전북(63), 부산(52), 경북(46), 충남(41), 충북(38), 경남(36), 대전(31), 대구(25), 울산(18), 전남(9), 제주(8), 세종(2)의 총 1,125곳이다.

앞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신천지 측에서 전체 성도 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 전체 신도 수는 약 21만5천 명이다.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신천지 측이 전국 시설을 비롯해 교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천지의 폐쇄적이고 은밀한 활동이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영 기자



신천지 측 시설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던 모습 ©뉴시스

"과천 신천지 교인과 함께 예배 본 인원 총 3천3백 여명"

경기 안양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참석한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정오 예배 현황이 밝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과천시 중앙동 10층 짜리 건물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총회 본부격인 과천 신천지교회는 건물 9, 10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엔 대형마트가 있다.

김 시장은 "안양 두 번째 확진자는 16일 1138명의 신도가 예배를 본 9층 대성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확진자인 서울 서초구 거주 A씨는 158명이 참석한 9층 소성전에서 예배를 봤다"고 덧붙혔다.

김 시장은 "10층에는 2000여명이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신천지교회측에 이날 예배에 참석한 3300여명의 신도 중 과천시민 명단을 요청하여 소성전, 대성전, 10층 참석자에 대해 역학적 관점에서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그리고 김 시장은 "이들의 검사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25일 오후 3시께 신천지교회 담당자를 직접 만나 과천시민 명단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가 경찰관과 함께 예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교회를 방문함에 따라 만남이 연기됐다"고 했다.

한편 25일 부인도 감염자로 확인돼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된 안양 두번째 환자 A모(33)씨는 과천 신천지교회 신도로 전해지고 있다. 전민수 기자

질본 "신천지 신도 전체 외출 말아 달라"

자가 격리 수칙 어길시 벌금 200만원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5일 신천지 신도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모든 신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 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가 격리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철저히 의료인과 방역당국 지시를 따라 달라. 이를 어길시 감염병법 상 200만원 벌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00여명과 공무원 모두를 연결해 격리 진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은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동시에도 자차를 이용해 달라"며 "자가 격리자로 관리되는 이들은 의료인과 방역당국 지시를 철저히 따라 달라"고 했다.

25일 오전 9시 코로나 19 확진자 전체 893명 중 501명은 신천지 관련자다. 약 56.1%이며 신천지와 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청도대남병원 확진 환자까지 합치면 전체 614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68.8%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질본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해 유선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 수칙을 안내 중"이라며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00여명에게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도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한 뒤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신속하게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은 신천지와 협의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했다"며 "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이를 배포한 뒤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중국발 입국금지 시급하다”

통합당, ‘대통령 책임론’ 부각
김현철 “文, 당장 용서 빌어라”

미래통합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발(發) 입국금지' 조치 전면 확대를 정부에 거듭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여론이 고조됐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반기 방한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코비드19(COVID-19) 발생국가가 된 사실을 지적하며 "발원국인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개탄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한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단계"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發) 입국 금지"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도대체 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안 된다는 것인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촉구했다"며 "즉각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키시라. 그것이 거의 유일한 극복의 출발점이다. 당장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조치부터 하시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보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종로구 예비후보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기념행사에서 추모사를 하던 모습. ⓒ 뉴시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미래통합당도 중국에 대한 한시적인 입국 제한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며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대책은 천정이 뚫렸는데 우산을 쓰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한시적인 입국 제한조치를 즉각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애당초 중국인 입국을 봉쇄했으면 대구 경북을 봉쇄할 일이 없었다"며 "이제 중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봉쇄하려하고 있다. 국제적인 망신이고 그 부끄러움은 죄없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 의원은 "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린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시진핑에 전화를 해서 방한을 다짐받았다고 한다"며 "이제 왜 문대통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을 이 지경에 빠뜨렸는지 명백해졌다. 그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총선 승리라는 정파적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중국인 비자 발급과 관련해 "비즈니스 비자 정도는 열어주고 나머지 일반이나 관광 비자들은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조치(비자 발급 제한)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따진 게 가장 주였기 때문에 전격적인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라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오히려 중국 입국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통일을 이루겠다는 망상을, 중국과 그 지도자를 이번 총선에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며 "그래서 과공(過恭)과 굴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음도 모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 "썩은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생각은 안하고 우리만 물갈이한다고 물이 깨끗해지나"라며 "오염원인 중국이 적반하장으로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유학생들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총선만 의식하고 우리 국민 생명은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문재인 당신은 당신의 삐뚤어진 친중정책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는가"라며 "세월호 당시 정권책임이라고 악쓴 그맘의 십분의 일이라도 국민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장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인가, 우리 국민의 보호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먼저인가"라며 "여전히 정부는 추가적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전 의원은 "당초 중국인 입국금지 등 철통방어를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정치,무능한 정권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국을 막고 있는 판에 지금 그게 무슨 실효성 있는 조치겠느냐"며 "이미 늦었다. 지금 그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확산세에 일부라도 원인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사후에 전체적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해서 확산되고 마무리되는지 나중 결과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WHO 상관 없이 자체 방역 힘써야”

‘팬데믹’ 아니라는 WHO…
전문가들은 “확산 통제 불가능”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대유행)' 선포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로나19는 명실상부한 팬데믹"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향후 몇 개월동안 세계적인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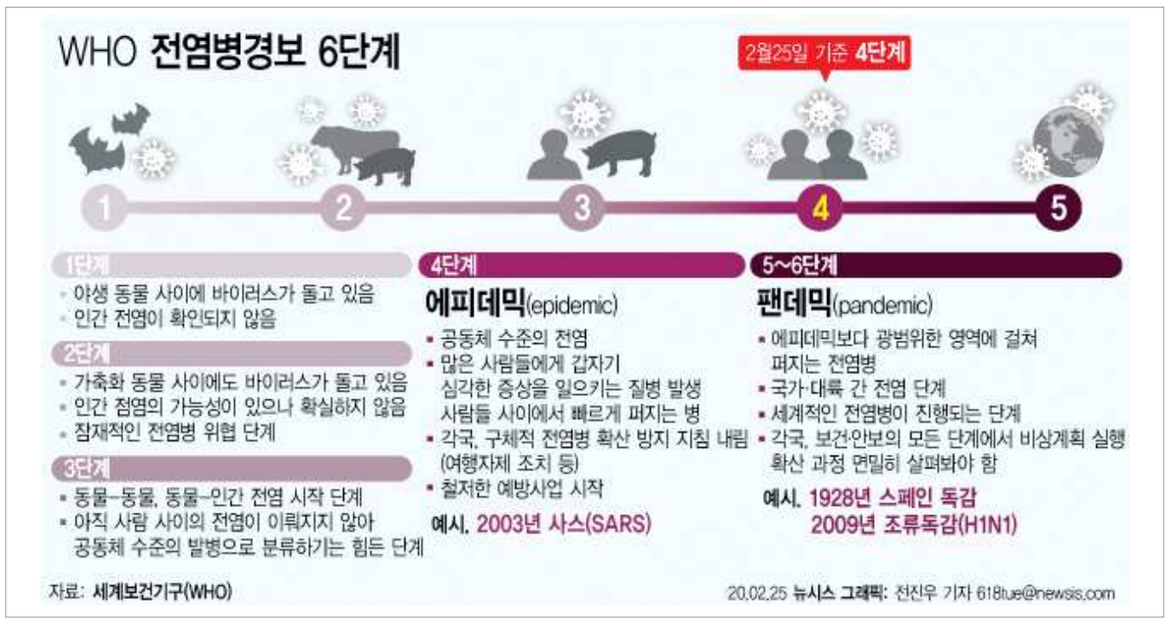
세계적인 공중보건 과학자 마이클 오스터홈과 다큐멘터리 감독 마크 올샤커는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아직도 팬데믹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HO의 명명과 관계없이 코로나19는 대유행, 즉 WHO의 6단계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6단계인 '팬데믹'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위험은 상상이상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에어로졸(공기 중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곳곳에서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에볼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는 달리 무증상 시점에서도 전염이 시작된다.

감염자는 평균 2.6명의 타인에 자신의 병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10차 간염자가 나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작 5~6일 수준이다. 최악의 사례의 경우 최초 확진자가 약 3500명까지 바이러스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인 감기, 독감과 구별하기 힘든 초기 증상은 진단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두 사람은 또 현재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는 이들이 '청정 지역'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오히려 검사 시설, 그리고 의료 기술의 부족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엑서터대 의과대학의 바라트 판카니아 교수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명실상부한 팬데믹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WHO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고 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마크 울하우스 감염병 역학 교수는 "팬데믹은 전염병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통제 불능으로 퍼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미 중국을 넘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전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전염 사태를 억제할 수 없다면 코로나19는 팬데믹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가 여러 나라의 바이러스 전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각국이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더욱 힘들어졌다는 뜻이다"고 했다.

앞서 24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팬데믹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양소리 기자



솔로몬교회, 코로나19 대처에 전 성도 총력

주일 예배 전후 방역 실시, 전 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솔로몬교회(담임 홍성익 목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당회를 소집하고 위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 장로)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솔로몬교회는 가장 먼저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 4부 등 주일 낮 예배(오전 11시 30분)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홍성익 담임목사와 교역자들만 교회를 지키며 모든 예배를 차질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를 전후로 방역을 실시하고 전 성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전염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켜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했다.

특별히 주일 오전 교회 출입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신천지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여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을 붙임과 동시에 본교회 성도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고 오직 한 군데의 출입구에서만 교인 확인 후 입장 가능하도록 강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솔로몬교회(담임 홍성익 목사)는 23일 주일 오전예배를 전후로 방역을 실시하고, 전 성도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지역사회 전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솔로몬교회 제공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예배당은 평소 3분의 1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다소 한산했으나 모인 성도들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

홍성익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요한복음 16:33을 인용하여 "성도들도 환난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며 승리할 것을 당부했다. 홍재철 원로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중세 페스트가 대유행하여 당시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도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위기의 때일수록 기도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산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처럼 제3의 성령운동으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한국교회를 괴롭혔던 신천지의 사상이 드러났으니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신천지의 출입을 금하고, 기성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신천지로 갔던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회 측은 "당회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전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처해가는 모습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질병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작금의 당면한 위기를 역전의 기회 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대구, 다음 세대 위한 '코로나 극복 실시간 연합예배' 시작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대구 교회들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극복실시간연합예배를 시작했다.

23일에는 송병준 목사(경북여상 교목), 황원섭 전도사(별만사교회), 최은택 목사(협성고 교목)가 예배 인도를, 24일에는 정현민 전도사(칠곡교회 고등부), 송상근 목사(성광중 교목), 이정이 목사(대구제일교회 고등부)를 인도했고, 25일에는 최재혁 목사(고산동부교회 청소년부), 최기석 목사(푸른나무교회, 코스트미니스트리), 김병호 목사(반야월교회 고등부)가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대구 CE인권위원회의 정순진 집사는 "대구지역 청소년 사역자분들과 함께 교호를 못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 연합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며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모이기 바라는 마음에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정 집사는 "우리는 예배자이다. 삶이 예배"라며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중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골방과 안방, 거실, 일터, 거리, 모임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길 기도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 여건에 따라 영상 또는 메신저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며 "교회를 폐쇄하게 된 당회와 목사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하셨을 거라 믿는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대구와 경북을 위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 지역의 교역자들. ⓒCE인권위원회 제공

한편 코로나극복 실시간 연합예배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매일 총 3명의 교역자가 예배를 인도한다. 유튜브에서는 목사쌤TV, 페이스북에서는 2020.okqr.net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신의 기자



확진 교도관, 안동신천지 방문

신천지 안동교회 폐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이 대구 및 안동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동시가 긴장하고 있다.

26일 안동시와 청송군 등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27)씨가 지난 24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번 달 신천지 예배 및 모임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대구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교정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청송군보건의료원이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해 검사를 요청하면서 신천지 신도라는 시실과 최근 동선이 밝혀졌다. 김진호 기자

"'성별 정정 허가' 관련 개정, 여성 지위 위협·헌법 위반"

동반연·동반교연, 대법원 법원행정처 규탄 성명 발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뿐"이라며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담양군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

3월1일까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시 중단

전남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양에는 불교 40개소와 기독교 67개소, 천주교 4개소, 기타 12개소 등 모두 123개소의 종교관련 시설이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계는 집회를 전면 제한했고, 개신교도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다.

집회 제한 기간은 3월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자제와 업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창헌 기자

“총신대 총장, 직 걸고 이사회 결정 반대하라”


김영한 박사

“임시적 관선이사회가 학교 더 어지럽혀 사건 본질은 총신대 설립정신에 대한 것 이 교수 강의, 오히려 더 권장돼야 할 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조직신학)에 대한 이 학교 법인(재단·관선)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총신대 관선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 중 소위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1차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2020년 1월 21일 기존 성희롱 발언 사유에 더하여 2차 피해 및 학내 문란 사유를 추가 징계 사유로 언급하며 징계를 더욱 엄밀히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러한 거듭된 이상원 교수 징계 요구는 120년 역사 가운데 명문 기독교사학으로서 개혁주의신학과 정통기독교 신앙에 따른 설립정신과 전통을 지켜온 총신대 내부와 총신대가 속한 합동총회의 반발을 불렀고 다시 총신대나 합동총회를 넘어 성경의 가르침과 정통신학을 따라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범기독교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거듭된 이상원 교수 징계 요구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총신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범기독교계 사이의 문제로 발전되게 되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총장은 관선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반동성애 입장을 천명한 총장이 반동성애 입장을 가르친 교수를 징계한다는 관선 이사회의 결정에 굴복하는 것은 개혁신학 전당의 교단 신학교 총장직 수행에 걸맞지 않다”며 “총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자이다. 총장이 관선 이사회에 밀려서 징계 강요를 당한다면 그는 징계를 거부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이사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관선이사회가 120년 전통의 기독교 사학인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에 따라 반동성애를 강의하는 교수를 징계하도록 결정함으로 도리어 총신대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교수의 정당한 교수업무와 기독교학교로서 총신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반동성애 입장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양심을 손상시키고 억압하는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본질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관련한 이 문제는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대해 무지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사회적 관심’이라는 이유로 총신대의 설립정신인 신학과 신앙을 따라 반동성애 강의를 한 교수를 징계하려는 것은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와 같은 행위”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에 대해 일어나 항의하는 것은 총신대의 신학과 신앙이 단순히 총신대나 합동총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장로교가 함께 가진 신학이고 신앙인 동시에,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지키고 이어져 온 신학과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과 교수 및 학생들을 향해서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총신대의 건학이념 구현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만일에 이상원 교수의 징계가 관선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철된다면 총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총신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발표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사진>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 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첫 사망자도 보고됐다. 대구지역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병된 것에 국민의 우려와 곱지 않은 시선이 기성교회와 기독교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역 확산과 2차 유행이 크게 예견되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총회는 고 위험군에 속한 교회의 대응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고 전했다.

먼저 “공 예배를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과 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교인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와 함께 소속교회 당회(혹은 담임목사)에 알려 예배참석 문제 등도 협의를 부탁 한다”며 “주일예배 외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점심식사, 친교, 회의, 성경공부 등)은 당분간 당회를 중심으로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예배공간과 집기들도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해 달라”고 전했다.

또 “대구, 제주, 전북, 서울 등 지역 확산이 관찰되고 있다. 당분간은 총회의 회의나 행사 등을 연기 혹은 대체해 달라”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방역용품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해 진정성 있는 돌봄을 지속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고통 받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소외된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며 “ 코로나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생필품, 방역용품 사재기 등 중국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파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준 목사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으로 어려운 시국을 성숙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전염병에 온 나라가 걱정…기도하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주일예배 설교



김경진 목사(소망교회)가 지난 23일 주일예배에서 ‘믿는 자는 기도하라’(사사기 6:6~1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기도를 해야 한다”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믿음이 적은 기도이고, 금식하면서 티를 내는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며, 기도하는데 낙심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기도보다 희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식주만 놓고 하는 기도 하는 것 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이는 매일 기도하면 공로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면 외식주의라고 비판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간절함이 없다고, 열정적인 기도는 자기감정에 도취되었다고 한다”며 바른 기도에 어려움을 말했다.

김 목사는 “유창한 기도, 막힘없는 기도, 흠이 없는 기도,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묻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사연이 많다”며 사사기 9장에 우발적인 요담의 기도와 원수를 향한 삼손의 기도,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차지한 후 회개 기도한 아합왕의 기도를 예로 들었다. 이어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 주시지만 동시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걱정에 휩싸여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로 민족을 섬기자.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다”고 역설했다.

장지동 기자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전광훈 목사 구속 전 ‘사의’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 커… 목회에 전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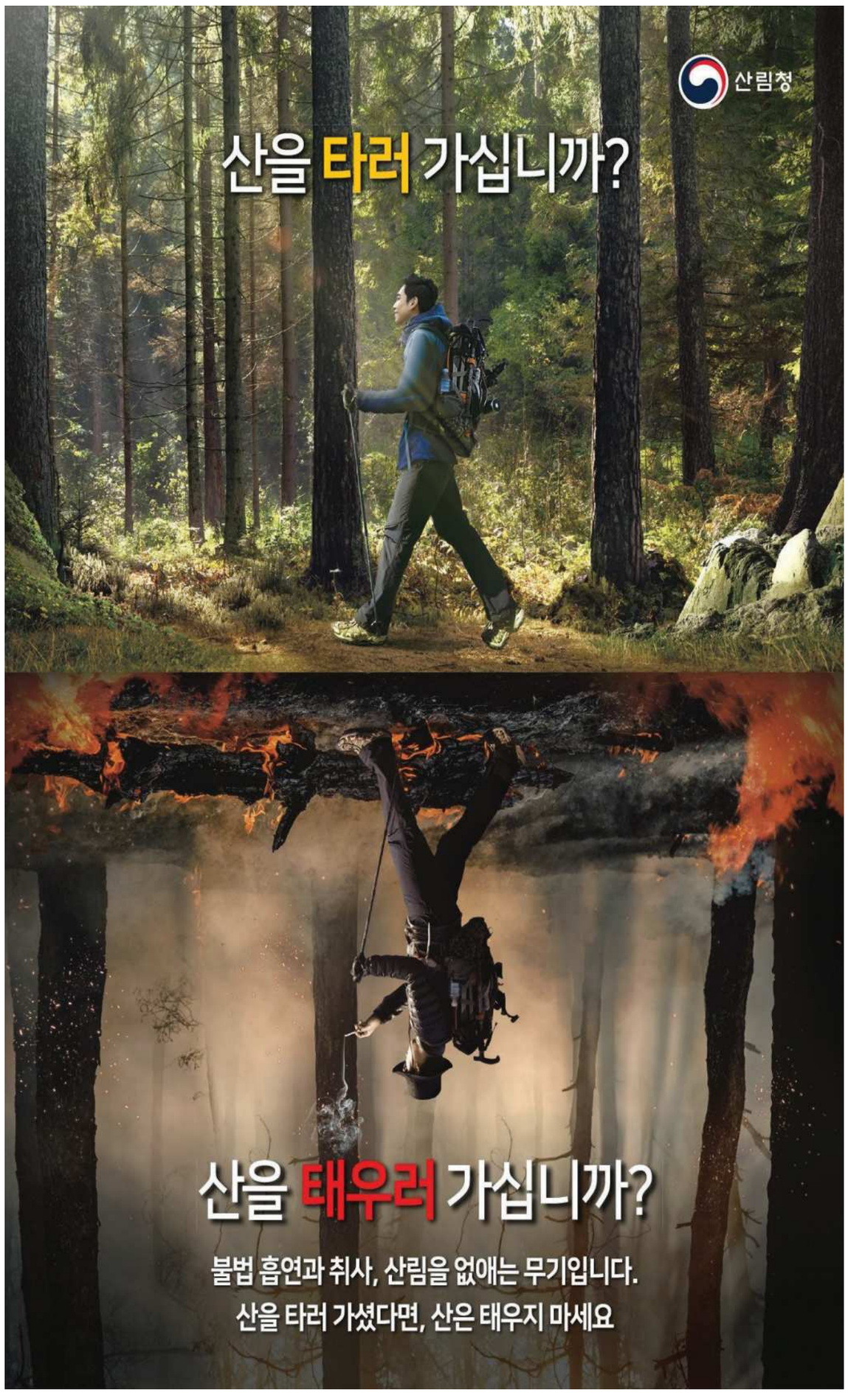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변인을 맡아온 이은재 목사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변인직 등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의 이 같은 사의는 전 목사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에 나왔다.

이 목사는 “그 동안 전광훈 대표회장의 비서실장 겸 (한기총) 대변인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해 왔다“며 “오늘(24일) 전 대표회장이 선거법(위반 혐의)으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전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지 못한 저로서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고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표회장을 보필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제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한기총 대변인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직 그리고 (전 대표회장) 비서실장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본연의 업무인 목회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활동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PCUSA 서기, 교단 대표해 "코로나19 치유 위해 기도"

NCKPC 최병호 총회장도 "모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주변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PCUSA 교단의 정서기인 허버트 넬슨(J. Herbert Nelson) 목사가 교단을 대표해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치유와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교단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버트 넬슨 목사는 특히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는 소식들을 전하며 "미국 땅과 세계 여러 곳에서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타겟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허버트 넬슨 목사는 "중국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이 바이러스의 끔찍한 여파와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과 치유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중국과 다른 모든 곳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부르짖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허버트 넬슨 목사는 "우리는 이 병으로 이미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과 앞으로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 또 우리는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보조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이 돌봄 속에서 통찰력을 갖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허버트 넬슨 목사는 백신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지혜를, 격리 등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통찰력을, 또 격리돼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내의 기독교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넬슨 목사는 "의료적 돌봄이 열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재정적 자원, 정치적 의지를 열어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실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고 성명을 끝맺었다.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 최병호 총회장은 "한국에서 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면서 "교단을 대표해 정서기가 발표한 기도 성명서를 함께 읽으며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제10대 회장단 출범

회장 이명희 목사, 수석 부회장 박정희 목사, 이사장 김은주 권사 취임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10대 회장으로 이명희 목사(ANG 교회), 수석 부회장으로 박정희 목사(새마음교회), 이사장에 김은주 권사가 취임했다.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는 지난 23일,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제9대 회장 이임식 및 제10대 회장단 취임식을 갖고 2020년 사역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다수의 남가주 교계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가 연합과 섬김의 성숙된 모습으로 말과 행동에 부끄럼 없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명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송전순 목사가 기도하고 민 김 회장(OC 전도연합회)이 성경봉독을 한 후 예루살렘 성가단이 특별 찬양했다. 이어 신소피아 목사(세계여성리더대표)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다"(요한복음 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숙영 목사의 봉헌 찬양, 안선신 목사가 봉헌 기도했으며 조현숙 목사의 광고 후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 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이·취임식에서 주재임 목사(9대 회장)가 이임인사를 전한 후 10대 회장인 이명희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명희 목사는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이끌어 온 세계적인 선교단체 창립의 모태가 됐던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한번 LA와 남가주, 미국과 전 세계의 변화와 개혁을 향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며 "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성 목회자들이 LA와 남가주의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회장 취임패 및 이임회장 공로패 전달 후 민승기 목사(미기총회장),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호우 목사(OC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사장), 김엘리야 목사(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총장)가 축사했다.

또 김인철 목사(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담임), 조이앨 목사(300용사 선교회 대표), 김회창 목사(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하고, 남상국 목사(연목회 증경회장)가 만찬 기도를 했다.

제10대 남가주 여성목사회 임역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명희 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 목사, 총무 조현숙 목사, 부총무 김재민 목사/김영일 목사, 서기 조안나 목사, 부서기 황선희 목사, 회계 조은혜 목사, 감사 안선신 목사/ 주재임 목사, 자문위원 백지영 목사(4대), 강지원 목사(5,6대), 김헬렌 목사(7대), 안선신 목사(8대), 주재임 목사(9대).

한편 이명희 목사는 나눠진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김인숙 목사)와의 통합 여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시간에 하나되지 않겠나. 언제나 소통하고 합력할 수 있다"며 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제9대, 10대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희 목사가 회장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 이상적 신앙 공동체 정신 계승해야

애틀랜타한인교회협 기념예배 및 특강 개최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남궁전 목사) 주최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예배 및 특강이 성료됐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역사신학교수가 강사로 나선 집회는 23일(주일) 오후 6시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남궁전 목사)에서 기념예배가, 24일(월) 오전 10시 30분 방주교회(담임 김성범 목사)에서 특강이 진행됐다.

23일 기념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남궁전 회장은 "애틀랜타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박용규 교수를 초청하게 됐다. 부흥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청교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청교도 정신을 깊이 새겨 애틀랜타 부흥의 초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청교도 운동, 그 역사와 사상'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용규 교수는 "아마도 이 행사가 미국 이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400주년 행사인 것 같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릴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는 "청교도 운동은 성직자들이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신앙의 개혁으로 이어져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졌다"며 "청교도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이상적 신앙의 공동체이다. 교리, 경건, 문화. 이 세가지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었으며 경건했고, 학교를 세우는 등 문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용규 교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것이었다.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이들이 청교도들이다. 이들에게 있어 종교, 정치, 사회는 별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규 교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며 겪은 어려움과 이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냈다.

앤더슨 김 기자



"박해 트라우마 극복 못 하면 인도주의 지원도 한계"

한국VOM, '아프리카의 북한'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 대상 훈련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기독교 박해국인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법을 강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초 한국VOM 사역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는 물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인을 도울 수 있도록 긴급 훈련을 실시했다. 현숙 폴리 한국 VOM 대표는 "오랜 세월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핍박한 나라 중 하나인 에리트레아는 카톨릭, 개신교 루터교, 콥트교, 이슬람 수니파 등 4개 종교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나마도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규제한다"며 "개신교에서는 루터교회만 인정되므로, 다른 복음주의 교회는 결국 지하로 내려가야 하고 결혼식, 장례식 같은 의식도 철저히 비밀리에 치러야 한다"고 알렸다.

에리트레아에는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목회자들이 많으며, 이들이 수용되는 감옥은 뜨거운 사막에 놓인 선박용 철제 컨테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가혹한 핍박을 피해 이웃 국가인 에티오피아로 탈출해 난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다.

폴리 대표는 "작년 에리트레아 난민에 국경을 개방한 공로로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사실 에리트레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가 국경을 개방하기로 협상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에리트레아가 국경을 다시 폐쇄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트라우마 치유 훈련에는 폐쇄된 국경을 어렵게 넘어온 에리트레아 목회자를 비롯하여 에티오피아 북부 국경에 있는 에리트레아 난민 캠프에서 온 목회자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폴리 대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고, 가족을 잃은 사람,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고질병과 장애를 안게 된 사람도 있다"며 "그들은 평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왼쪽)가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이번 훈련에 참여한 한 여성은 몇 년 전 남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으며, 자신도 독방에 갇혔다. 교도관에게 강간을 당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고, 석방된 후에도 수치심에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게조차 숨기고 있었다. 에이즈약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한다.

폴리 대표는 "그 여성을 만나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시편 34편 4~5절('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을 암송하라고 처방했다"며 "수치심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라고 말했고, 그 여성은 수치심 때문에 남몰래 고통당하는 똑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해 자신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기독교대학에서 트라우마 극복 테라피를 전공하고 임상 상담 석사학위를 취득한 현숙 폴리 대표는 작년 12월 아프리카 카메룬을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왔다. 또 현지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벨기에, 태국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어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경우, 전 세계 교회가 가장 먼저 보살펴주어야 할 부분이 바로 트라우마 극복"이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으면, 핍박받는 나라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전 세계 교회가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나 예배당 건축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VOM은 에리트레아 순교자와 기독교인 수감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 중이다.

이지희 기자

"교회가 난민의 손 잡아주길"

KWMA DR센터 기도제목 전해

올해 초 서울 가산동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옥에 개관한 이주난민센터 KWMA DR(Diaspora-Refugee)센터가 최근 사역 소식과 기도제목을 전해왔다.

KWMA DR센터는 "앙골라에서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된 난민 가정 J씨의 큰 아들 다윗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무사히 선정돼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8세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다윗은 발달장애가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DR센터는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교육을 잘 받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윗을 잘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앙골라 J씨와 자녀들. 맨 왼쪽이 큰 아들 다윗. ⓒKWMA DR센터

아울러 2월 첫째 주부터는 왕십리 소재 H교회가 난민 지원 사역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DR센터는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아도 식사를 만들고 게임도 하며 고향을 떠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난민의 마음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이들을 통해 난민들도 숙소 생활이 지루하지만은 않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계속해서 많은 교회가 난민의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다음 사역 어떻게 준비할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네팔선교연구원 주관, 한국위기관리재단 주최 세미나

중국과 인도에서 한국 사역자들의 비자발적 철수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이슈가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형 교단 선교부는 중국 선교사 380명 중 300명이, 인도 선교사 50가정 중 40가정이 비자발적 철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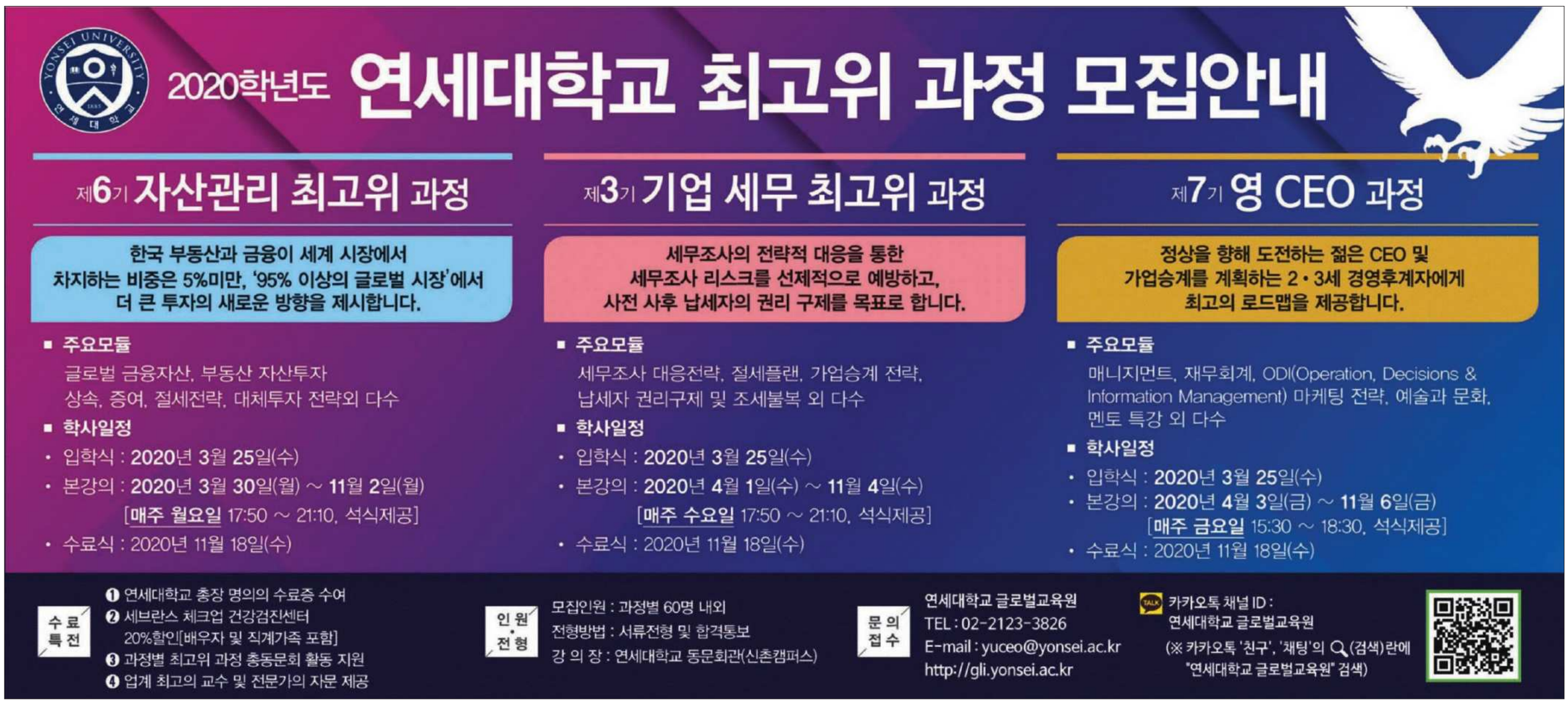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가 증가하는 원인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다양한 단체와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디브리핑과 휴식, 상담을 제공하지만, 막상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의 다음 사역지와 사역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와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의 다음 사역을 돕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오는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남대문교회 알렌기념관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네팔선교연구원(연구교수 김한성)이 주관하고, 한국위기관리재단(사무총장 김진대)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에게 다음 사역 준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에서 사역했으니 화교권에서 사역하라는 식의 너무 쉬운 답과 선교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공인이고, 선교사의 사역은 한국교회의 공적인 사역"이라며 "선교사의 다음 사역지와 사역의 선택은 선교사에게는 향후 10~20년의 생활과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며, 한국교회에는 선교사 한 가정당 10년을 생각하면 약 3억 원, 20년을 생각하면 약 6억 원의 재정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는 이전 선교지에서 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전문가로, 다음 사역지와 사역의 선택에는 이처럼 귀한 인적, 지적, 재정적 자원의 사용이 따른다"면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은 다음 사역지와 사역을 선택하기 전 필요한 정보와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드레 선교사(GBT)가 자신의 다음 사역 선택과 준비 과정을 나누고, 김한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재배치 사역을 준비할 시 고려할 사항과 선교 재정 모금 원리와 방법을 설명한다. 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은 선교사 재배치와 관련된 위기관리 사항을 안내한다.(gilyforever@gmail.com, 카카오톡 ID: tot0413)

이지희 기자



커피숍, 지하철역에서 기념하는 '재의 수요일'

미국 성공회 워싱턴 D.C. 교구 '애쉬 투고' 행사 진행

미국 성공회 워싱턴D.C. 교구가 '재의 수요일'을 기념하는 '애쉬 투고'(Ashes to Go)를 진행 중이라고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재의 수요일'(26일)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지하철역과 커피숍 등에서 열렸다.

워싱턴D.C. 교구의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며 "커피숍이나 지하철역, 학교 주차장에서 워싱턴 교구의 교회 지도자들이 고대 전통의 현대적 표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영적 연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바쁜 일주일 동안 '재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애쉬 투고'를 이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D.C. 교구는 지난 2013년부터 '애쉬 투 고'를 시작했으며 매년 도심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이다. 성공회나 가톨릭, 일부 개신교는 사순절 첫날인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 참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뒤 남은 잿가루로 교인들의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을 행한다.

이번에 열린 '애쉬 투고'와 같은 행사는 이같은 의식을 현대화·간소화한 것이다. 워싱턴D.C. 성공회 뿐만 아니라 먼홀랜드 연합 감리 교회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회는 매년 자동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서 기도와 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쓰루 애쉬'(Drive Thru Ashes)를 감독하고 있다.

먼홀랜드 UMC의 팀 스미스 목사는 지난 2016년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인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순절 첫날을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강한 영적 갈급함과 갈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LGBT 캐릭터 등장 논란

내달 6일 개봉 '온워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온워드'에 등장하는 동성애자 캐릭터.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오는 3월 6일 개봉하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온워드'에서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야후 엔터테인먼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에서 스펙터라는 이름의 경찰관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여기



고 여자친구와 함께 등장한다. 스펙터의 목소리 연기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여배우 리나 웨이스가 담당했다.

영화의 제작자인 코리 래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 장면은 적합했고 그것은 세상을 조금 열어놓았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댄 스캔론 감독은 "이 애니메이션은 현대 판타지 세계이며 현대 세계를 대표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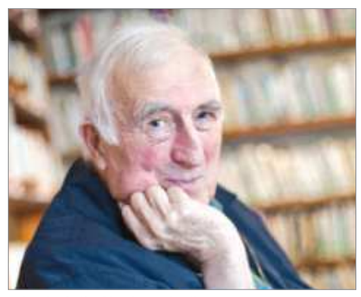
영화 '온워드'는 마법이 사라진 세상 속 이안(톰 홀랜드)과 발리(크리스 프랫) 두 형제가 주어진 시간인 단 하루 동안 아빠의 반쪽을 찾기 위해 마법으로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미션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CP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스펙터는 픽사의 첫 번째 LGBT 캐릭터이지만 디즈니는 그간 '앤디 맥'에서 십대 게이 커플을 묘사하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미녀와 야수'와 '맥스터핀스' 등에서 LGBT 캐릭터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홍보하고 있다. 최근 소니 제작 영화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양성애자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프랑스 장애인 사역자, 사후 성추문 폭로돼 파문

피해자 6명… 영적 지도 빌미로 성관계



장 바니에. ⓒ라르쉬 제공

라르쉬 설립자인 故 장 바니에 박사가 6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캐나다인 장 바니에는 1964년 프랑스에서 자선단체 라르쉬(L'Arche, 방주)를 설립한 후 평생 발달 장애 및 지체 장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해왔으며, 지난해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라르쉬는 배움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장애가 없는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가정과 센터를 제공해 왔으며, 38개국에서 1만명 가량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154개의 센터가 들어섰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고, 라르쉬 인터내셔널(LI)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6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독립 컨설턴트 단체 GCPS는 "이 여성들은 모두 비장애인이었으며, 조사 전에는 서로에 대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니에 박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지도를 빌미로 성관계를 시작했으며,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자신들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했다고 폭로했다.

LI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학대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다. LI는 보고서에서 "장 바니에는 토마스 필리페 신부와 같이 그의 권위를 남용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영적 수단의 맥락에서 영적·신비적 설명을 늘어놓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수 년 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장 바니에는 각각의 여성들에게 사건들의 본질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로의 경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같은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매우 흔치 않은 신비주의적 설명에 관해 비슷한 사실들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아발론, 10년 만에 새 앨범 'Called' 선보여

"세상에 필요한 예수님의 메시지 전하고파"

한국에도 잘 알려진 CCM 그룹 아발론이 10년 만에 'Called'라는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발론의 새 앨범 'Called'가 최근 발매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룹 창립 멤버인 맥브라이어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음악 산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10~1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내게 눈에 띄는 것은 절박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믿음과 용기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구원자를 원하고 희망을 원한다.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렉 롱은 "지금의 기독교 음악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가르키고 있다.



아발론 새 앨범 표지 ⓒRed Street Records

그분처럼 사랑한 이가 없고, 그분처럼 구원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발론은 지난 2018년 10월 그렉·자나 롱, 조디 맥브라이어, 대니 로카로 새 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입 멤버인 로카의 투입과 더불어 그룹의 창립 멤버인 맥브라이어의 복귀를 알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995년부터 음악을 해 온 이 그룹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처음 음악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는 무엇인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kt 5G
Jennie Red
Galaxy S20+ 5G Aura Red | Galaxy Buds+ Red
Galaxy S20 사전 예약 | 2월 20일~26일 전국 KT 매장, 공식 온라인 KT Shop

코로나19, 한국 체육계 강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1 FIBA 남자농구 아시아컵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19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수원 삼성과 빗셀 고베의 경기에 앞서 수원삼성 팬들이 마스크를 쓰고 응원하고 있다. ⓒ 뉴시스

연기·취소·무관중 속출

바이러스 태풍이 대한민국 체육계도 강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심각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국민과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에 대해 사실상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서 확진자가 이미 수백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각 체육 단체들은 수천, 수만의 관중이 운집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14일 시범경기가 열린다. 아직 20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시범경기 연기 또는 취소, 무관중 경기 등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농구와 배구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여자프로농구(WKBL)는 이미 무관중 경기를 치르고 있고 남자 프로농구(KBL) 역시 무관중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KBL은 25일 이사간담회를 열고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잔여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프로배구는 25일 경기부터 무관중 경기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상황 호전 시까지 도드람 2019~2020 V-리그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프로농구, 프로배구는 사상 초유의 무관중 플레이오프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프로 스포츠 외에 다른 종목도 대회 연기, 취소를 결정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코로나19 추가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해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일정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최근 대의원총회, 실내대회, 심판강습회, 아시아연맹 운영위원회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테니스협회도 3월 7일부터 경북 김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결정했다.

코리아 컬링리그(KCL)는 플레이오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경마, 경륜, 경정사업도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 사업장 내 소독할 실시하고 있다.

아이스하키 안양 한라와 오지 이글스(일본)의 2019~2020시즌 아시아리그 4강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역시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

한편 25일 무관중 경기로 치룬 삼성화재와 한국전력과의 배구 경기는 감독도, 선수도 낯설었다.

관중의 함성 대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경기장을 채웠다. 경기 후 양 팀 사령탑들은 나란히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성대 기자



국내 겨울철 프로스포츠 전부 '무관중'

KBL도 무관중

남자프로농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중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5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국가 위기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관중 없이 경기를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KBL은 휴식기 후 리그 일정을 정상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취소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논의 끝에 무관중 경기라는 선택을 내렸다. 관중 입장 재개 여부는 추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무관중 경기는 당장 26일로 예정된 고양 오리온-울산 현대모비스전(고양체육관), 인천 전자랜드-안양 KGC전(인천삼산월드체육관)부터 시행된다. 프로농구 관계자 외 일반 관중 입장은 전면 금지된다.

이미 한국배구연맹(KOVO)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데 이어 KBL마저 이에 동참하면서 국내 모든 겨울철 프로스포츠는 당분간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다.

한편 KBL은 현재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KBL D-리그' 준결승(3월2일)과 결승(3월9일)을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권혁진 기자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1 FIBA 남자농구 아시아컵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장재석이 자유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부산세계탁구선수권 6월로 연기

국제탁구연맹 제안 수락

하나은행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가 오는 3월 22일 개막 예정이었던 대회를 6월로 연기했다. 오거돈·유승민 공동위원장은 25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를 6월 21일부터 같은 장소(벡스코)에서 치르기로 국제탁구연맹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거돈 공동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대회를 연기하자는 국제탁구연맹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공동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국제탁구연맹의 개최도시 실사 때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상황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당초 대회 일정 변경 없이 무관중 경기로 대회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회원국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보호를 위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출전국 확보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22명이 추가로 발생, 현재 확진 환자는 총 38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5대 종단 지도자들에게 종교단체의 집회나 예배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해 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 뉴시스

국제탁구연맹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 전에 이번 대회를 개최해야 최우수 선수 참가를 확보할 수 있고, 올림픽 직전에 개최할 경우 각국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부산을 활용토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6월 개최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대 기자

'코로나 19' 확산 공연계 패닉

공연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과 관련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공연장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종문화회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다. 잇따른 공연 취소에 패닉에 빠진 것.

24일 공연계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전날 긴급공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 심각단계 조치 사항으로 '예술의 전당은 일주일간 기획 공연·전시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월 마지막주에 예정된 기획공연 '아티스트라운지'와 기획 전시 '추사 김정희와 청조 문인의 대화', '조선근대서화전'을 전면 취소하거나 휴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공간을 임대한 기관·단체·업체 대표 등에게도 이날부터 3월2일까지 운영 지속·잠정 중단 등의 운영여부를 회신 받기로 했다.

예술의전당은 "외부 단체 및 민간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대관 공연, 전시 행사에 관해서도 취소 혹은 중단시 해당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내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관 행사 취소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대로 25일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예술의전당은 25일부터 예술의전당 출입구를 제한 개방하기로 했다. 음악영재 아카데미 강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공연&음악감상(성악) 아카데미도 26을 휴강한다. 인무, 미술실기 등의 아카데미 강좌는 25일 개강을 1주일 뒤로 미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또한 공간 전역의 지속적인 방역외에도 출입문 일부 폐쇄 및 제한 개방을 통해 감염증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변화 및 확산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련 주최사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에 빠르게 대비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일부 문화시설도 이날부터 휴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3월까지 공연장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세종문화회관은 기획 공연, 대관 공연 등에 대해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공연장에서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와 '은밀하게 위대하게 : 더 라스트',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등이 대관공연하고 있다.

유력 민간 공연장들도 공연을 취소하고 있다. 두산아트센터는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두산아트랩 2020' 공연을 중단했다. 이 시리즈의 남은 연극인 '뜻밖의 여자', 'Ciphers-암호문'을 취소했다.

경기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7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예정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앤솔러지 시리즈I'를 취소하기로 했다. 3월5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개막 예정이던 경기도립극단의 연극 '브라보, 엄사장' 개막은 같은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진행 중인 공연 및 전시 일정을 중단하고 시설 휴관을 결정했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큐브미술관 등 주요 시설에 추가 방역을 마치고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설전시실과 반달갤러리는 무기한 휴관한다.

클래식공연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이미 '2020 대관령겨울음악제'가 24 ~ 25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겨울나그네' 공연을 취소했다. KBS교향악단은 27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한 2월 정기연주회를 취소한다. 공연기획사 아트앤아티스트는 3월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 예정이던 '로시니 오페나 콘체르탄테: 세비야의 이발사'를 취소한다.

금호아트홀 연세도 27일 첼리스트 김두민과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연 예정이던 '세 도시 이야기: 첼로'를 시작으로 3월5일 '앙상블 로드 – 룩스 트리오', 3월7일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 홍세희'까지 취소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관부 산하 공연장들도 분주하다. 이날 오전 국공립 공연 기관들은 대표를 중심으로 비상회의에 돌입했다. 국립극장은 3월에 예정된 창극 '아비, 방연', '완창판소리', '정오의 음악회', '시조 칸타타', '빨간바지' 등의 공연을 모두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립국악원 역시 3월8일까지 자체 공연에 대해 휴관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민간 작품은 취소를 할 경우 대관료를 환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결국 정동극장도 지난 14일 개막한 공연 '적벽'을 3월8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기간 공연 예매자 환불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정동극장 관계자는 "'코로나 19' 예방 조치를 위해 그동안 정기 방역 작업을 주 1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최선의 예방조치를 다 해 왔다. 그러나 정부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3월8일 이후 공연 '적벽' 재개에 대한 부분은 향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정부 대응을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국립극단이 운영하는 명동예술극장도 휴관을 검토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상주 기관이자 문체부 산하의 공연 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합창단은 3월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이었던 '제101주년 3·1절 기념연주회 - 아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3월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안심포니 관계자는 "창단 35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공연으로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코리안심포니의 관객들과 직·단원 등 많은 관계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 취소를 어렵사리 결정했다"고 전했다.

3월5일 2부에서 코리안심포니의 35년의 여정을 담아 연주 예정이었던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한화와 함께하는 2020 교향악 축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코리안심포니의 연주는 4월17일로 예정됐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예술단 등 3월 중순 이후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로 공연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애초 3월 22일까지 공연 예정이던 뮤지컬 '줄리앤폴'은 티켓을 오픈한 3월2일까지만 공연하기로 했다. 대학로 일부 오픈런 공연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몇년동안 침체에 빠진 공연계에 '코로나 19'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가 나섰다. 지난 20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코로나 19 관련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를 마련, 공연예술피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이재훈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극장가 직격탄

관객수 반토막·개봉 줄줄이 연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극장가에 비상이 걸렸다.

2월말과 3월초 개봉예정인 영화들은 개봉을 연기하거나 언론 시사회, 언론 인터뷰 등의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했다.

외화 '인비저블맨'은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배급시사회를 취소했다. 24일 유니버설 픽쳐스는 "25일 진행 예정이던 '인비저블맨'의 언론배급 시사회가 취소됐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를 염려해 급하게 내린 결정이다. 개봉은 26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즈니·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온워드:단 하루의 기적'도 개봉을 미뤘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측은 "'온워드:단 하루의 기적' 개봉을 3월에서 4월로 변경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후 개봉일 확정 고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봉 연기와 함께 26일 진행 예정이던 언론·배급 시사회 일정도 연기됐다.

국내 영화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26일 개봉예정이던 영화 '사냥의 시간'과 다음달 5일 개봉예정이던 영화 '결백'은 개봉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예정됐던 언론·배급 시사회와 배우들의 인터뷰 일정도 취소했다. 다음달 5일 개봉예정이던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도 개봉일을 연기했다.

각 배급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대중 밀집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를 엄중히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기다려준 관객들과 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주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극장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22~23) 영화관을 찾은 관객은 약 47만명이다. 전주 주말(15~16일) 120만명과 비교해 관객이 50% 이상 급감했다.

신효령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계 협력"

7대 종단 대표단 모여 메시지 발표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참여하는 7대 종단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KCRP 수장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종교 지도자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지난주 초에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조금의 방심과 이기심이 더해지는 순간 모두가 걱정 할 정도로 확산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높은 의료시스템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여전히 상황은 잘 통제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들은 개인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정부와 의료진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능력을 신뢰하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협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정현 기자



창세기 1장 해석의 딜레마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창세기 1장은 사실 현대 과학의 복잡한 우주 기원론이나 생명기원론 등 고차원의 과학과 기술의 언어가 동원된 계시가 아니다. 평이한 단어들로 서술된 총 31절에 불과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계시이다. 그런데 단순 용이하게 묘사된 창세기 1장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부딪히는 딜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온갖 창조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신학적 이론이 난무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파생된 기독교 이외의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 유대교, 이슬람까지 포함하면 창조 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이 "딜레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딜레마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그 근원적 요소들부터 살펴보자.

1. 히브리 성경 이전의 계시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성경 창세기 1장 계시 이전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최초의 언어는?>

언어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언어가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렇다면 성경 토라의 언어(히브리어)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렇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한 가장 오래된 문자와 언어로는 히브리어 이전 수메르의 설형문자(쐐기문자)와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있었다. 이 가운데 세계 최초의 문자 발명 증거가 노출된 곳은 고대 수메르 도시 우룩(현재의 Warka; 성경에서는 Erech, 창 10:10)이었다.

물론 이 학문적 성과가 곧바로 최초의 언어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수고하고 추적해 발견해 낸 현재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어는?>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이 쓰던 언어와 글의 원형이 무엇이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는 성경을 포함하여 오늘날 전혀 추적이 가능하지 않다. 바벨탑 언어 혼잡 사건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모세 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요 이스마엘 후손들의 조상도 되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창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을 것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대홍수 이후 바벨론에서 언어가 혼잡 된 이래 진정한 언어적 세계 통일은 쉽지 않게 되었다(창 11:9).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온 땅의 인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분명 히브리어가 아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통용되던 언어에 능숙했을 것이다. 그곳은 바로 '쐐기문자(cunéiform)'가 통용되던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주전 3000~4000년 사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계곡에 도시들을 구축하면서 이 문자를 창안했다고 알려진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곳의 문화와 우상에 젖어 바로 이 최초 문자의 영역 속에 있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학생들이 기억해야 하는 문자는 600 여개였고 단어와 음절, 한정사를 모두 포함하면 166-188개의 글자에 달하였다.

모세 이전 창조 계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에, 알파벳 이전 이 쐐기문자의 한계와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창조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 모세와 그 백성들이 400여 년간 하층 생활을 영위하던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익혀야 하는 상형문자가 100여 개밖에 되지 않을 만큼 어휘가 풍부한 문자는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언어의 부침을 겪었다. 그리고 이집트 상형문자는 분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설형문자보다 풍부한 어휘를 가진 문자는 아니었다. 즉 언어의 엔트로피는 오히려 아브라함 후손들 속에서 증가하였다.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처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점점 더 그 명료함을 상실해 갔을 것이다.

<창조 계시 보존의 험난한 과정>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 선조들의 본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보다 언어적으로 더 낙후된 환경 속에서 종교와 문화적 향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 이방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보존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창조 계시는 "아담과 하와의 언어"-> "노아 언어"-> 홍수 이후 "바벨탑 혼잡 언어" 속 보존-> 인류 최초 등장한 비 알파벳 문자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의 쐐기문자(일명 설형문자) 아래 다른 신들(우상들, 수 24:2)을 섬기던 아브라함 조상(아버지 데라 등) 속의 계시 보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대하 20:7)의 언어 환경(수메르어?) 속 보존(?)-> 야곱 후손들의 이집트 상형문자와 언어 속 보존(?)-> 출애굽한 "모세 집단"의 언어(히브리어의 잉태 시기?) 속 보존-> 알파벳 셈족어에서 파생된 초기 히브리 언어 등장("토라 생성 시기")-> 현대 히브리어에 보존-> 성경 원본 상실 -> 다양한 사본(寫本) 속 보존 -> "다양한 역본(譯本)들 속의 보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생각보다 단순 명료한 창조 계시(창세기 1-11장)가 지난(至難)한 과정을 겪어온 셈이다.

<첫 알파벳의 등장>

설형 문자와 상형 문자를 거쳐 역사적으로 흔적이 나타나는 확실한 첫 번째 알파벳은 주전 14세기 나타난 우가리트 알파벳이었다. 현재의 시리아에서 발굴된 이 가나안 셈어군은 문자 모양은 쐐기형이었으나 모양만 닮았을 뿐 모음과 자음의 음가를 가진 알파벳 글자의 원형(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우가리트 알파벳이 수메르-아카디아 철자들에서 파생되어 출현한 알파벳인 반면 비슷한 시기 이집트 상형 문자로부터 비롯된 알파벳이 시나이반도에 나타났다.

이집트 사람들은 한 문자가 한 단일 자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한 글자가 한 자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알파벳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귀족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알파벳 체계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한글을 창안 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복잡한 한문을 선호하던 것과 유사하다. 반면, 원시나이어(원셈어) 알파벳으로 불리는 이 알파벳이 바로 가나안, 페니키아, 아람, 그리스 문자들과 고대 히브리어로 발전된 원시 문자였으니 이 알파벳에서 라틴어와 에트루리아어를 거쳐 현재 유럽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셈어의 원형은 시나이반도에서 파생되었다.

<히브리 알파벳의 원형을 가진 창세기와 토라의 탄생>

이렇게 문자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면 알파벳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자를 융합하면서 시나이반도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모세(애굽 탈출 시대)와 다윗 시대(가나안 입성 시대) 사이에 히브리인들은 자신들만의 히브리어를 구축해 가면서 원셈어와 여기서 파생된 다른 셈어 문자들의 단어에 담긴 우상 문화 코드들을 구분, 정리하고 히브리 민족에게 계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여기서 비로소 오늘날 인류가 접하는 창세기 1장과 토라가 탄생했다. 이것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온 원시 히브리어 속 보존된 창세기 1장 해석의 딜레마를 만들었다. 즉 딜레마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문제였다. <계속>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과 코로나19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책에서 찾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전거(典據)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봅니다. 문학은 성경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저는 문학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인문학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9개의 언어에 능통했고, 40여 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자신이 교수로 일했던 볼로냐 대학교 도서관 모든 책들의 위치를 기억했던 천재입니다. 그는 '문학은 죽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학이 주는 영감과 지혜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금번 코로나 19 뉴스를 들으며 성경을 펼쳐 전염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이 지난주 칼럼이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을 다룬 소설들 즉,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주제 사마라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체호프의 "티푸스", 에거드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 등등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소설 "적사병의 가면"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적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맹위를 떨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콧구멍에서 피를 펑펑 쏟으며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에 진홍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적사병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환자에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간호와 동정을 멈추고 도망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프로스페로 대공은 궁정의 귀족, 친구, 귀부인 등등 1000명을 데리고 외딴 사원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합니다. 사원에는 몇 년이고 먹을 식량과 오락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광대도, 즉흥 시인도, 발레 무용가도, 음악가도, 미인과 술도 준비했습니다. 적사병을 막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은둔 생활이 지루했던 대공은 어느 날 무도회를 엽니다. 그런데 시체처럼 기괴한 가면을 쓴 남자가 홀연히 나타나자 무도회는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분노한 대공이 정체를 묻자 얼굴을 드러내는데 적사병이었습니다. 대공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어 사원에 피신했던 모든 귀족들이 적사병으로 죽습니다. 참혹한 소설의 결말은 실패한 전염병 대처법을 보여 줍니다. 작품이 보여주는 그들의 실패를 정리하면서 오늘을 돌아봅니다.

먼저, 지도자의 무책임한 피난이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난리인데 대공과 그의 친위 귀족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사원에 피신합니다.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 살길만 찾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피신은 그들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둘째, 어설픈 봉쇄는 헛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가 꼭꼭 숨었습니다. 사원의 벽을 높이고,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높은 벽과 철문으로 봉쇄했지만 전염병은 높은 담과 철문을 조롱했습니다. 어설픈 차단과 통제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셋째, 막연한 낙관론이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그들의 대책은 은둔생활이었습니다. 외딴곳에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면 전염병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박한 낙관은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전염병을 낙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전염병을 교만한 맘으로 가벼이 여기면 큰 낭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넷째, 백성은 고통인데 잔치가 웬 말입니까? 나라의 지도자 대공은 적사병이 창궐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무도회에서 대공이 적사병으로 죽습니다. 이 극적 결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요 미국 단편 소설의 선구자인 에드거 앨런 포는 지도자들의 모순과 무책임을 질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코로나 19를 대처하고 있나요?

인류는 앞으로도 전염병을 만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신종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종 전염병을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사망병'입니다. 인류 최대의 전염병인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전염병 대처의 왕도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생명의 역사가 된 것처럼 메르스도, 사스도 희생과 헌신으로 이겼습니다. 금번 코로나 19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마음의 병'



류한승의 러브레터

1. 코로나19는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대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뉴스에 나타나기 전, 설 연휴에 〈남산의 부장들〉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나와 그분이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똑같이 영화를 본 것인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분과 그 지역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이 나일 수도 있었을텐데, 싶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첫째로 잠복기가 있어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 둘째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라는 것은 이동 경로가 어디인지도 알아야 하고, 발병 당사자도 누군가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2. 그런데,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알아보기 힘들고,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명사와 여러 가지 동사를 붙이면 모든 말이 다 되거든요. '마음먹다, 마음을 그리다, 마음대로 산다, 마음을 주다·얻다, 마음 쓰다'. '내 마음 믿어', '내 마음 알지?', '니 맘 다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3.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먹는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매번 변하면서 마음을 준답니다. 도대체 뭘 주는 걸까요. 마음을 달랍니다. 사실은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니 맘 다 안답니다. 아는 건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겠지요 내 마음 알지? 왜 타인에게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물을까요.

4. 성경은 마음과 관련해, 딱 하나의 동사를 제시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24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호함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 모호함에 속아 구체적인 자기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호한 단어일수록 구체화시키고 자기 삶에 스며들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미래에 보여줄 그 땅을 오늘을 살아감으로 구현했습니다. 마음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먼 미래에 내가 준비하고 나서 행동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킬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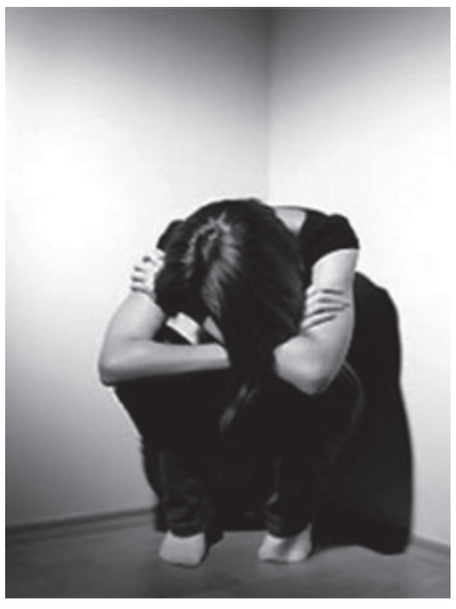
6.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이 땅 줄거야" 말씀하는데도, 땅에 눈 먼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마음이 언제 흔들렸나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7. 창세기 12장,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장에 10절에 가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잠깐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 하나님과 약속도 잊고 애굽이라는 화려한 나라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귀향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거류하려고'라는 말은 그 아브람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셨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에서 이제 버티고 살자. 그 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자 했던 아브람이 다시 식구들을 설득해 '우리 기근을 피해 잠시만 애굽에 거하자'고 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애굽에서 살 생각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전의 아브람이 마음을 지켰을 때는 너무 좋은 땅 하란을 버린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가나안을 향해 갔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8. 아브람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장이 아니라, 얼마나 아브람의 내면에 어둠이 많은지를 드러냅니다. 애굽으로 간다면 마음이 편해야겠지요? 가족들과 함께 살 생각으로 애굽에 갔으니, 더욱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야겠지요? 그

런데 마음에 불안이 생긴 겁니다. 문득 옆에 있던 사라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예뻐"라고 합니다. 사랑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여야 해." 그 고백은 사라를 위한 고백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줘.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존재는 소유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치는 줄 아세요? 소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순간, 모든 것과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거짓 사랑의 고백에 속아,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유함이 될 수 있습니다.

9. 물론 성경은 아브람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서 다시 회복되는지 알아야 소망이 있으니까요. 13장에 가면, 롯의 하인과 아브람의 하인이 비좁은 땅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람이 회복된 상태가 되자 롯에게 가서 말하기를 "네가 먼저 땅 선택해. 나는 나머지 선택해도 돼"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유보다도 그 한 존재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브람에게 나타나 "너 걸어가봐. 땅 다 줄게. 너 눈들어 보이는 것 다 줄게"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땅은, 헤브론 산지 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니 그냥 우리 마음에 대단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죽기 직전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 신앙의 유산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 외에 땅 한평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브람의 삶이었습니다.

10. 문제는 이 상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밤에 불러내 말씀해주십니다. "나는 네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네 자손들 번창하게 해줄거야." 그런데 아브람의 마음이 삐쭉해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뭘 줄건데요? 저 자식 없잖아요." 삐져있습니다.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에 자기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자가 네 상속자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거야."

11.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람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라의 말에 속아, 결국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사래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아브람은 17절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손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겉으로는 공손해보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 가득한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셨습니다.

12. 결국 아브람의 그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놀랍게도 20장에서 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 자기 합리화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같은 잘못은 반복되고 더욱 강화되게 마련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변하는 자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지식과 경험의 합산이 더해져 마음을 감추고 꼬아버리는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지고 말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렇지요.

13.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다시 회복되지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도, 마음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가장 험악해졌음에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살리시고,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은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14. 말이 길었지요. 코로나19로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청년들마저 상황이 조금 바뀌면 마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해버립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런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 자신에게 전염시키는지 이동 경로가 확보되지 않고, 내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구 전염시키고 있음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사라와 같은 말로 마음을 잃게 만드는 사람도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될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변한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해, 합리화로 스스로를 변명해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아시지요.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장 크고 가장 알아보기 힘든 심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장난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마음은 전염됩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염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계 곳곳에 코로나와 각종 질환으로 시달리시는 모든 환우 분들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샬롬.

생명샘교회 류한승 목사



석기현 목사 설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본문: 히 3장 7-19절
설교: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오늘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도는 '자기 속의 반항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기록하기를 "7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9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첫 구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95편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양을 부르시는 목자로 비유하는 문맥과 연관시키고 있는 인용입니다. 즉 양이라면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함으로써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본문 6절 이전까지에서 증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화육강세까지 해 주셨던 목자장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된 '오늘날'이라는 현재에 살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로 특권적인 계시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자각하는 성도는 그런 까닭에 더욱 조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8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저질렀던 실패를 되새기면서 결코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처구니없게도 "노하심을 격동하는" 반사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뜻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불쑥 솟아올랐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노하심을 격동하여'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반역'(rebell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라고 번역된 말은 '광야에서 시험 중에 있을 때' 혹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했던 것을 오늘날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는 반역'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 출발은 바로 "마음을 강퍅케" 한 데에 있었습니다. 여기 '강퍅케 하다'라는 단어는 '말라서 단단해지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닫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바로 그처럼 영적인 고집불통, 선입견, 반항심 등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을 비유할 때에 이 '강퍅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사십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를 보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아닌가?'를 테스트했다는 뜻으로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험했다'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을 조사하다, 확인해 보다'라는 뜻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감히 '떠보려' 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강퍅한 심령'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보려 하는 극단적인 교만과 불신앙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상이나 석상처럼 '무반응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적 신이신 까닭에 그처럼 당신께 대하여 무례하기 짝이 없도록 반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대로 그야말로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그 자체가 '미혹되어' 즉 '길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 길"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버렸으며, 그것은 곧 그들의 앞에 남은 길은 오직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1인칭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모든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허락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발휘하실 수 있는 권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안식에 대한 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버릇처럼 반역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이처럼 '가나안'으로 예표된 '영원한 안식' 즉 구원의 완성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최종선고'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려' 주실 때에 자기 속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강퍅한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정말이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정말 그럴까?'하고 제일 먼저 '의심'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미리 경고해 주실 때에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발심'이 당장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명을 선포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은 주시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말인가?'하고 '대꾸'를 하고 '불평'을 하며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강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예 버릇처럼 '따지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훈계와 교훈 앞에서 반사작용처럼 '대드는' 것이야말로 살아 계신 절대 주권자를 감히 '시험'하고 '증험'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미 '마음이 미혹된 자'의 결말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이며, 그런 '외면적인 종교생활'의 끝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멸망의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신의 심령에 들릴 때마다 바로 그런 '강퍅한 덩어리'가 불쑥 솟아오르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그 대신 오직 '아멘'이라고 믿음과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오늘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성도는 그것을 '자기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12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14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앞의 11절까지에서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를 상기시켜 준 후에 이제 "형제들아"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제1차 수신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그 교훈을 적용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여'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란 바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조심해야 할 상태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evil heart of unbelief), 다른 말로 '불신앙의 악한 마음'은 바로 앞에 나온 '강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심선언'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비판 정신의 발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백이면 백 다 '악한 불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심령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거리가 멀어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다'(fall away)라는 뜻입니다. 즉 설교 말씀에 의구심이 생기고 교역자의 권면에 반항심부터 솟아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서, 교인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은연 중에 품고 있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마는' 끝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염려'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희 중에" 혹시 그런 교인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하면서, 그런 까닭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는 바로 성도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는 말을 통하여 들리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강단을 통해 듣게 되는 설교 말씀, 교역자가 심방을 와서 권면해 주는 말씀, 혹은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를 '일깨워 주는 영적 조언'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권면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일깨워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로는 경고와 책망까지 해 주는 것은 그 상대방 교우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자까지도 미혹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유혹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바로 '교회를 통한 성도끼리의 권면'입니다.

이미 죄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 버린 후에 교역자가 알게 되면 그때는 늦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역자보다 평소에 훨씬 더 자주 만나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즉시 상대방을 향하여 "아무개 교우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라고 바로잡아 주고,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반발심이 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곡히 권면해 주면,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들을 초전에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처럼 성도끼리 권면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에 보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란 바로 '처음 믿을 때'란 뜻입니다. "확실한 것"이란 기초적이면서도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서로 권면을 할 때 무슨 '신학적으로 차원 높고 깊은 지식'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배웠던 '기본 교리와 기초적인 신앙생활'만 가지고서도 충분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신앙생활 포기하려는 교인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천당영생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세상살이 좀 힘들다고 이 좋은 것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심방을 가서 교인들을 권면할 때 역시 무슨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저 "주일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십일조를 바쳐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라는, 아주 쉽고도 기본적인 권면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처럼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 교회에 나오면 정말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들만 "끝까지 잡으면"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내세에서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 주는 간단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중 낙심하거나 실족한 교우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권면하는 것은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음이 강퍅해지는 시험에 빠질 때 곁의 교인이 그것을 보고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 교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열심히 서로 권면함으로써 내 이웃에 있는 교인이, 우리 구역의 구역원이, 같은 전도회에 속한 회원이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하여 따끔한 권면의 말을 해 주는 교인이나 교역자들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로부터 막아 주는 정말 고마운 '형제'인 줄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피차 권면하는 것은 세상사회에서 서로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의 죄를 지적해 주고 경고해 주는 것은 결코 '사생활 간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분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진정한 사랑의 발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인사만 나누고 가끔 같이 모여 노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교통은 서로의 약한 것을 북돋아 주고 서로의 실족을 일깨워 주며 서로의 신앙을 지켜 주는 '권면'에 있음을 깨닫고, 이처럼 '오늘'이라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떨어진 것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하는' 구원의 완성에까지 다 같이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음성 들려주실 때, 자기 속 반항심 물리쳐야
교회를 통해 음성 듣게 될 때, '자기 신앙 회복' 기회로
음성 내게 들린다는 것은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15절 이하 19절에 "15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필연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강조하면서 설의법적인 자문자답으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일 뿐이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사실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불신앙이야말로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불신앙', 즉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퍅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려서 그 진행과정을 요약해 본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지옥 영벌에 떨어지고야 만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곧 '심판날'이 될 수 있는 것이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이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뭐 꼭 순종하지 않아도 다음 주일에 또다시 들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교인에게는 그 '다음 주일'이라는 것이 꼭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심방을 온 전도사님이 권면해 주는 말씀, 바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일'은 아주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에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려 하는 반항심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 목사의 설교와 성도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올 때에,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바로 그 '오늘'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화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이 아직은 내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택자를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알고,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함으로써 '처음 믿을 때의 확실한 것'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가운데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꼭 함께 참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성노 목사 설교

열왕기하 강해



본문: 왕하 17:13-26
설교: 푸른교회
조성노 목사

(왕하 17:13-26, 개정)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5]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지난주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게 주전 931년입니다. 그 후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8명은 자연사하고, 7명은 쿠데타로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20명의 왕들이 다 불행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격노하사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생애가 단 한 사람도 복 되지 못했습니다. 208년 동안 20명의 왕을 배출했음에도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행복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앗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젊은 청년들은 대거 전쟁 포로와 노예로 앗수르에 잡혀갔는데,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왕들의 운명이 불행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신을 따라가고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이하도 마찬가집니다.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2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앗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거의 3만 명 가까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후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다른 식민지에서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앗수르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고, 북이스라엘에 앗수르의 다른 식민지에서 이방인들을 이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앗수르의 중요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야 반란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제사 드릴 것이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됩니다.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큰 모욕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하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과 귀신 들렸다는 말이 동급입니다. 이것이 다 사마리아의 과거 역사적 전력 때문입니다.

문제는 잡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입니다.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놋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잡혼뿐만 아니라 이주해온 이방인의 신들까지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오랜 치부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우리의 문화나 신앙생활의 조건도 당시와 마찬가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신봉하며 삽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 하반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다원화된 종교 문화 속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우상에게 포위되어 결국 자기들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세상을 살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옛 사마리아와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우상을 멀리해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상 종교에 동화되거나 미혹되는 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좇는 성도가 됩시다. 특히 부모나 조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이하를 보십시오.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랜 역사가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던 자리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종교가 유입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자손도 그들 조상이 행하던 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잘 전수되어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계는 그야말로 대대손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므로 복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국장 김진영 인쇄인 허요섭

136-0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200,000원 / 6개월 100,000원 / 1개월 20,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2-739-81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RKETPLACE
마켓 플레이스

제 1494호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홈페이지 www.cplace.co.kr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부동산

교회 교육관 건물 매매

★교회 교육관 건물★
◎매매가: 2억=〉 1억 9천 (가격절충 가능)
◎건평: 48.5평. 2~4층 각각 15평
/ 1층은 15평 (실평수는 19평 정도됨)
음식점도 가능하도록 허가 나 있음.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77
연락처☎ 010-8660-1041

월세가 저렴한 교회임대

◎매물종류: 교회 및 기도원.영성원 가능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약 29평정도
◎거래금액: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십
(부가세 별도)
◎매물위치: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67
(부산 사하구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밑)
연락처☎ 010-7758-3423

상가교회 매매

◎매물종류: 교회
◎매물크기: 실평수(23평)
◎거래금액: 매매가-1억 7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포함)
임대- 보증금 2000/ 월세 40
◎매물위치:전남 목포시 옥암동
연락처☎ 010-3628-2874

부천 63평 교회임대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63평
◎거래금액: -보2500/ 월40
◎매물위치: 부천시 중동시장 근처
(현재 비어 있음)
연락처☎010-7341-1990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55평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가능)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가능)
▶연락처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매물크기: 지분- 249.4㎡ (75.44평)
/ 상가- 122.94㎡(37.18평) (유아실, 목양실)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매물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승APT 상가

▶연락처☎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매물위치 : 서울시 광진구 노룬산 시장 앞
1. 노룬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3. 방음이 잘되어 있음.
6. 예배실, 화장실1개, 부엌, 사무실겸 목양실, 유아실, 창고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010-8884-0291

청평수양관(기도원) 저가임대

- 건물(2층) 300평
(1층 예배당, 2층숙소, 주방, 식당)
- 대지/산림 13,000평 (힐링코스)
- 접근성 양호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즉시입주 / 장기임대 가능
(1층 예배당 200명 이상 수용가능)
▶연락처 ☎010-5779-2368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內)
- 교회운영 즉시 가능
-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영국,캐나다)
- 공동주택(단지內) 3,000세대
-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010-5779-2368

단독교회 건물교환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매매 및 교환
◎매물크기: 대지 80평/ 건평 170평
◎거래금액: 10억(융자3억8천/ 잔존가 6억2천)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대학 인접
▶연락처 ☎031-445-8291
/ ☎010-8234-9729

최고입지 교회매매

대지(303평. 2필지) -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건물: 교회- 1층(62평) - 소예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화장실,2층(62평) -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래금액: 7억원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매물크기: 대 2805㎡
+ 최고급 유럽식 단독주택 2동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숙소,
-기도원, 연수원, K팝숙소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內
[매물장점]
- 4층 건물에 2층, 바로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 목양실 있음 전기판넬 있어 생활 가능
-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매물위치 :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 3층의 3층 304호
난방방식 : 도시가스
상가용주차장/ 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르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구인·구직

예배인도자를 모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조이어스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남,여 상관 없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예배(목요 말씀 집회와 수요여성예배 중)때 함께 섬겨주며,
찬양팀 보컬티칭을 할 수 있는 분!
문의) 김창석 목사 010-5298-0814

시설관리 간사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Teaching) 치유하며(Healing) 전파하는(Evangelizing)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이며 교회이름 역시 3대 사역 영문 첫 글자(acronym)를 조합하여 더(THE)사랑의교회 입니다.
소방, 전기, 차량(1종대형)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오정필 010-7152-720

초등부 교육전도사 모집

서울 예수사랑교회에서
초등부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사역: 초등부(초등 4~6학년 60명 출석) 전담
-나이 및 성별: 제한 없음
-학력: 복음주의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 제출처 : goodtree717@naver.com
2. 문의 : 송성근 부목사010-6863-0691

편집부 직원 모집

규장에서 함께 일할 편집부 직원을 모십니다.
도서 기획, 편집 교정 교열 등 2년 이상 경력자를 모십니다.
임금(연봉)은 채용 결정시 대표자와 개별 협의합니다. 전화 문의는 사양합니다.
이메일로만 문의 접수를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kyujang0691@gmail.com

파트전도사 구인

대전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대조건 : 인근거주자
기타자격 : M.div. 재학 및 졸업자,
또는 신학/기교과 학부 전공 후 MA
또는 MACE 재학이상 자
문의 : 김성웅 010-2959-0908
mirseon82@onnuri.org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십니다.

서울중앙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지도를 지도합니다. 찬양인도 경험이 있거나 은사가 있는 분이면 우대합니다.
우대조건 : 유경험자,인근거주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 simonword@hanmail.net

갓피플 기획자 모집

갓피플 성경App 운영, 기획 업무할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 기독교어플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어플 및 사이트 기획, 운영을 해보신 분
★ 웹기획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신 분
문의 : 김희동 02-571-1111
chin179@gmail.com

교육전도사님 모집

경기도 오산동산교회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우대조건 : 운전가능자,컴퓨터능숙
문의 : 윤병길 010-8928-0687
bkyun1122@hanmail.net

어린이부 교육전도사 청빙

예장합동 동암교회(서울역근처 후암시장 옆)
열심히 사역하실 동역자를 모십니다.
1. 담당부서: 어린이부 (유치, 유초등부)
2. 사례: 월 80만원
3. 제출서류: 자기 소개서, 이력서
4. 제출: kbbj34@hanmail.net
김병중 담임목사 010-3208-3937

★교회건물 매매 및 임대★

◎ 매물크기:
대지-90평 / 건물 137(평)
반지하(53평) 교육관,식당,사무실.
주일학교 예배실.
-1층: 53평 (예배당)
-2층: 31평(사택)

◎ 거래금액:
5억2천만원
(융자 1억7천만원 포함)
/ 예배당 기물드림
(임대도 가능함)

◎ 매물위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연락처 ☎ 010-3055-2367

교회부지·요양원 부지 전원주택 부지 매매

◎위치: 평택시 독곡동(송탄)
◎면적: 5000평
◎지목: 임야 및 대지
◎매매가: 평당 120만~170만
(소규모 분할 매매가능)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배수관.
가로등. 인입로 포장완공

연락처 ☎ 010-7238-5696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저렴한가격으로
정성껏 시공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지방교회 상담환영

(주)원영 www.wyinc.co.kr
010-3627-1904, 02-472-190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
농업·농촌·농협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매일묵상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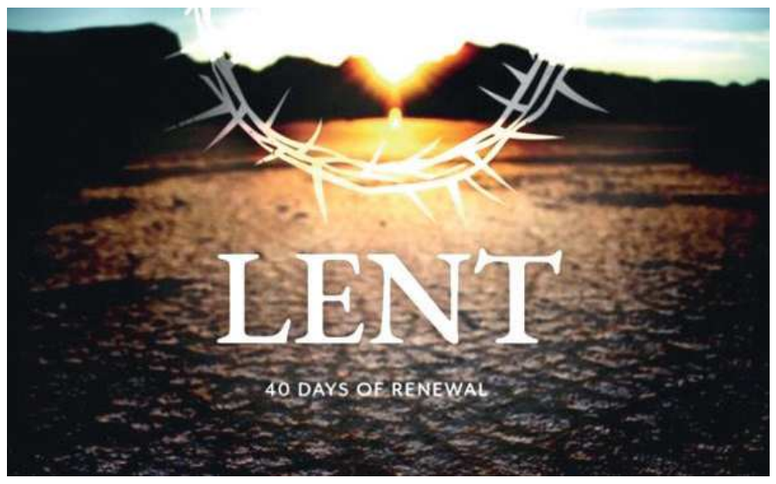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되어 있는 신비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마음과 몸이 신비로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유기체적인 생명의 일치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아들이 전제되어 있고 아들이라는 말 속에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제거하거나 분리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깊이 연합되어 있기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셨던 더 큰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셔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감찰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심 속에 싸여있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행 28:24-27).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앙의 신비'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열려진 귀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삶'을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됩니다. 흩어지고 고통과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1~1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성경간증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실제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상상하기 싫고,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이 아무 경고 없이 닥쳤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깊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 고난 없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말 앞에서 제 믿음은 약해지고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뎌내리라는 다짐 보다는, 여전히 저에게 닥칠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제 삶을 덮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아무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살얼음 위를 걷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고, 주일학교 교사 섬기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



세가 되던 1871년 시카고 대화제로 그는 전재산을 잃었고 피부질환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약화된 아내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럽여행을 계획합니다. 아내와 오린 네딸을 먼저 배에 승선시켰으나, 곧 그 배는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구조되었으며 4딸은 모두 물에 잠기는 불행을 겪어야 했고, 아내로 부터 온 전보를 받은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고, 그 사고 지점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절규하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채플에서 욥의 긴 고난의 과정을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고난을 관념적으로 이해했다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 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 수록 실제적인 고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사실 제게 있는 모든 것, 소유, 자녀, 건강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야 겠습니다.

생명의말씀사

말씀과 그래픽의 만남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만나자!

성경이 단숨에 읽히는 비주얼 성경 가이드

한눈에 쏙 들어오는
다채롭고 생생한 인포그래픽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선명하게 살펴보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의 간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고난도 축복"

신간 『또 하나의 눈』

고(故) 이청준의 장편소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의 신앙 에세이집 『또 하나의 눈』이 발간됐다. 그는 이번 책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한다.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안 목사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바. 그는 45년 전, 37세 젊은 나이에 실명을 겪게 됐다. 절망이 덮쳐 왔지만 그 와중에 기독교에 눈뜨고 신학교를 거쳐 목회자로 거듭났다. 현재 그는 맹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새빛복지재단' 이사장 및 '새빛맹인선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맹인 재활, 양로, 선교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고난에 대한 묵상을 전한다. 그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이런 환란은 내게 오지 않도록'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 요청을 받곤 한다. 그러나 우리 삶은 고난과 환란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며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며 "시련과 환란을 통한 연단은 순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진해 나가는 신앙이 될 것을 권면한다.

또 신앙 안에서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한 부분만 보면 시험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종체적으로 보면, 연단을 통하여 순전하고 겸손해진 우리를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축복을 알게 된다."

이번 책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신앙 입문, 고난에 맞서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도 방갈로에 새빛맹인센터를 세운 이야기 등 사역 현장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나눈다.

이민선 기자



또 하나의 눈
안요한 | 시간의 숲 | 200쪽 | 11,000원

양준일 에세이집 출간되자마자 1위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가수 양준일의 에세이집 『양준일 Maybe』가 나오자마자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2월 셋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차트에 따르면, 『양준일 Maybe』는 유튜브 콘텐츠 만화 『흔한남매3』과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따돌렸다.

양준일 에세이는 여성 독자 비율이 83.8%로, 남성(16.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4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여성(18.8%), 50대 여성(18.5%), 20대 여성(7.1%), 60대 이상 여성(5.6%) 순으로 집계됐다. 이 책은 예약 판매 단계부터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 베스트셀러 진입은 예견돼 온 터였다.

전승환의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4계단 오른 7위로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이 개봉하면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알에이치코리아)이 전주보다 81계단 상승한 24위에 올랐다.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북』도 만만찮은 가격(3만7천원)에도 불구하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후광을 업고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자리를 지키며 85위를 차지했다.

이민선 기자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교회학교만으로는 역부족"

신간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신간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한국교회의 절실한 과제인 '다음 세대 교육'을 다루고 있다. 저자 신형섭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아동, 청소년 신앙교육을 뜻하는 '다음 세대 교육'의 성공의 키가 '부모'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신앙 부흥기를 맞았던 조부모 세대를 거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주 1회 예배가 거의 전부인 교회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부모를 신앙 전수자로 양육하는 것. 교회와 가정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신앙을 가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다.

반포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있을 때 이 패러다임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게 됐다. 당시 반포교회는 새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가정-교회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선교 철학이 새롭게 대두된 상황. 교회는 교역자, 중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새로운 선교 철학에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갔다.

저자는 "이러한 여정은 온 회중들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이 교회학교가 아닌 교회 전체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마침내 기존의 지역 기반, 성인 기반의 교구는 완전히 개편되어, 자녀 연령별 교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모 세대의 변화와 함께 자녀 세대의 회복 또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다"고.

저자는 자녀를 "제자화"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녀 세대 부흥의 디자인대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나 삶으로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시키기 시작한다면, 이 시대는 거꾸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제자화될 것이다."

책은 교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매뉴얼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다. 1장 〈성경 리포트〉에서는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본다. 2장 〈현장 리포트〉에서는 통계와 분석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현장을 살핀다. 3장 〈패러다임 바꾸기〉에서는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를 디자인할 때 요청되는 교회별 사명과 비전,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전략과 단계별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4장 〈실천 현장 매뉴얼〉에서는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를 실천하여 열매 맺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5장 〈연령별 신앙양육 로드맵〉에서는 자녀들의 인생 주기에 따른 연령별 특징과 그에 따른 양육 실천 매뉴얼을 제시한다. 6장 〈매뉴얼 리포트〉에서는 교회에서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되, 담임목사, 교육총괄자, 교사, 부모 등 영역을 나누어 세부 매뉴얼을 제시한다.

이민선 기자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신형섭 | 두란노 | 200쪽 | 11,000원

2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서 처형되기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되기를 "의도"했던 것이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게 되기를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이상적인 목적이었다. **레슬리 D. 웨더헤드, <하나님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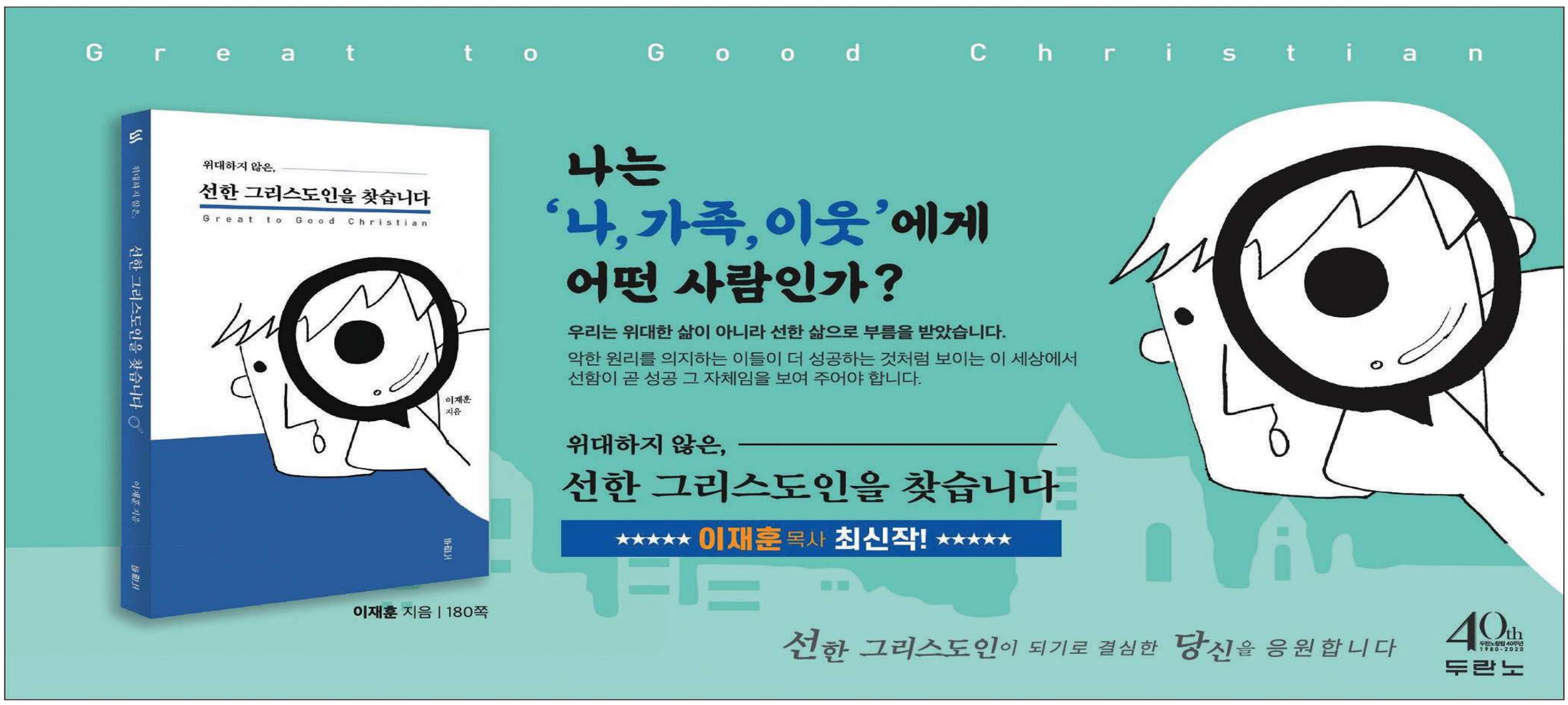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배는 우리를 빚어 가는 근본적 동력이다. 우리가 고약하리만치 제멋대로라 해도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찾지 못한다. 정체성을 찾으려면 언제나 나 자신 밖에 있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집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가지 역학 모두 진실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어 간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되어 간다. 페이스북 용어로 직접 표현하자면, 우리는 '좋아요'라고 한 것을 닮아 간다.
토니 라인키,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내가 거래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불교 신자였다. 그 분에게는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질까 봐 계속 말을 못 했다 … 사실 그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예수쟁이한테 주지 마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뿐 아니라, IMF가 오고 다른 업체들이 부도날 때 오히려 내게 오더를 더 주면서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않아?"라고 하셨다.
김기동, <고구마전도>



어느 노벨상 수상자는 유리병을 하나 들고 서서 "제가 시간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는 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죠. 굵직한 돌들을 가져와서 유리병 윗부분까지 채운 다음, 이번에는 조그마한 돌들을 또 유리병에 집어넣었고, 다시 모래를 부은 다음, 마지막으로 물까지 부어 넣었습니다. 마침내 유리병이 꽉 차게 됐죠.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큰 돌부터 먼저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작은 것들도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외, <루틴의 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세우기 첫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주신 목적과 명령(창 1:26~28)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명확한 동기에 따라 지으셨음을(26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직업을 찾을 때 분명한 동기를 갖고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안에서 성장하고(생육),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번성), 개척되지 않은 지식을 향해 전진하며(정복), 허락하신 것들을 잘 유지하라(다스림)는 말씀입니다. 이 네 영역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고 자기실현의 보람이 있으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은 생계수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생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명령을 이행한다는 자세로 직업을 갖는 우리는 부도덕하지 않은 모든 직업과 업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회의에 빠져 있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에 짜증을 느끼고 삶에 회의를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업에 대해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의 인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게 영향을 미치나, 얼마나 커다란 부피의 일을 다루는 것인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측정도구로 직업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생의 목적인가, 내가 내 직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나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건물 앞을 청소하는 청소원의 직업에서 고귀함을 느낍니다. 그의 노동은 신성하며 성실하게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원의 삶은 부도덕하게 큰일을 벌여놓은 사람들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도록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는 폐지를 처분하는 노동자의 노동을 가치있게 봅니다. 그는 '자원의 재생'이라는 영역에서 땀을 투자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것만을 추구하는 오늘,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모든 일에 의미 있게 눈길을 주며 직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역사

398년 오늘, 교부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가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가 되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생몰년: 349년경 – 407년)또는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이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그는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349년 안티오키아(안디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로마 군단의 장교였고 그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 밑에서 양육되었다. 법학과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신학도 함께 공부했으나 결국 기독교에 헌신하기로 하고 은둔 수사가 되어 성서를 공부하였다.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한 탓에 건강이 나빠지자 안티오키아로 돌아온 그는 381년 멜레티우스 주교에 의해 부제서품을 받았고 곧이어 386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후 12년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사목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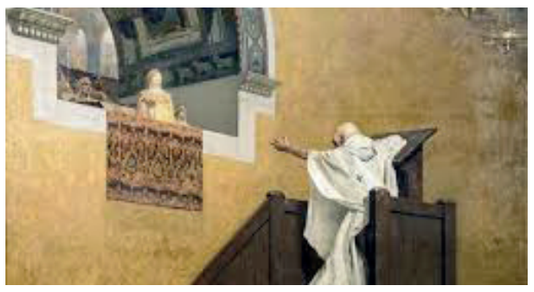
387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즉위 10주년을 맞아 안티오키아에 특별세가 부과되자, 시민들이 납세거부 투쟁을 일으켰는데 시민들은 테오도시우스와 그 가족의 석상을 부수고 공중목욕탕을 파괴하였다. 이 때의 납세거부 투쟁은 요한네스의 부추김을 받은 것이었는데, 결국 안티오키아 당국의 과잉 진압으로 참혹한 학살극으로 끝나는 결과를 낳았다.

398년 요한네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로 추대되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도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다운 특유의 명쾌한 설교와 강의로 그 곳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권력자와 부자들의 사치와 인색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적도 많이 만들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동로마의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황후인 아일리아 에우독시아였다. 에우독시아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행실로 크리소스토무스 대주교에게 공공연하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소스토무스 대주교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또한 요한네스는 청빈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고, 그의 감독을 받는 사제, 수녀, 수사들은 모두 독신생활을 해야 하였다.

이러한 강직하고 까다로운 성격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인 테오필루스와도 불화를 일으켰다. 403년 테오필루스는 오크 회의에서 요한네스와 설전을 벌였다. 회의에서 그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요한네스를 기소하였는데, 정작 요한네스가 출두하지 않자 그를 단죄한 뒤 대주교직에서 면직시켜 버렸다. 이를 기회로 유독시아는 남편 아르카디우스를 부추겨 그를 비티니아로 유배시켰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요한네스 대주교가 유배되자 폭동을 일으켰고, 테오필루스의 지지자들과 충돌했다. 그 날 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에우독시아가 유산을 하자 황제는 그를 다시 불러


에우독시아 황후와 논쟁을 벌이는 요한네스

들였다. 그러나 이후 에우독시아의 은상(銀像)을 둘러싸고 다시 황후와 요한네스 대주교는 대립했고 결국 다음 해에 벌어진 종교회의에서 요한네스 대주교는 다시 추방당했다.

대주교는 유배를 떠나기 직전, 교황 인노첸시오 1세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교황은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도움을 받아 이 사태에 개입을 시도했다. 호노리우스와 교황은 아르카디우스를 압박하여 크리스소토무스 대주교를 돕고자 하였으나 아르카디우스는 응하지 않았다. 406년 서방 황제와 교황은 대표단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파견했으나 아르카디우스는 이들을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감금한 후 이탈리아로 다시 돌려보냈다.

407년 가을, 요한네스는 소아시아 폰투스의 외딴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동방교회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가 죽은 뒤 약 31년 후인 438년 요한네스는 공식적으로 명예 회복을 받았고 그의 유해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왔다. 당시 동로마 황제이자 유독시아의 아들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엄숙히 장례를 치루어주었다.

그러나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제4차 십자군 세력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하여 약탈을 벌일 때 그의 유해는 십자군에 의해 파헤쳐져 로마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800년 후인 2004년 11월 2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요한네스의 유해는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와 이장되었다.

현재 전승되는 크리스토무스 대주교의 설교를 보면,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거든, 그것을 남들과 나누라'거나, '그리스도의 제대가 금으로 된 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설교처럼 부자들의 인색함과 사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는 어떤 교부들보다 많은 설교와 책을 저술했으며 실제로 보존되어 남아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 388년 안디옥에서 설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연속 설교를 책으로 엮은 〈부자〉(규장)와 지평서원에서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가 출간되었고, 아침이슬에서 〈단순하게 살기〉가 번역 출간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소중한가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말했다.

"친구, 날씨도 좋은데 함께 골프 치러 가지 않겠나?"

"고맙네만, 나는 크리스천이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잠시 후 골프를 치자던 사람이 말했다.

"음 그래? 나는 자네의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정말로 감탄사가 나오는군. 내가 그 동안 일요일 아침에 자네를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아는가? 열 여덟 번일세. 그렇게 여러 번 찾아왔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네. 그런데 말일세. 그 교회라는 곳이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도 그렇게 더 재미있는 곳인가?"

"그렇고 말고. 골프장이나 낚시터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지. 크리스천은 주일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그게 큰 믿음이거든."

"그런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라는 곳은 갈만한 곳이 못 되는 장소임이 분명하네. 나도 처음에는 자네의 열심을 보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재밌는 곳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자네에게 열여덟번이나,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가자고 권했는데 자네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는 것을 보니 자네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네."

주님의 비밀

이난수

한때는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해 주시더니
또 한때는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연단해 주신
그 처음에는
세상에서의 자유가 그리워
몸부림쳤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연단의 참 의미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사랑이며
은혜였던지요

당신은 신비로운 비밀속에
보일듯 말듯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소강석 목사, '주사파 비방'한 목사 고소 취하

"진심 담긴 사과 했으니 쿨하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소 목사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취하했다. 제가 보기에 이은재 목사님이 진심이 담겨 있는 사과를 한 것 같았다. 당연히 취하해 드려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가짜뉴스를 가지고 교계 지도자를 공격하는 문화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25일 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법적 조치를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그냥 용서하지 않았다. 사울의 겉옷자락은 베었다"며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자락을 베임받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다. 그 옷자락 사건으로 사울이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저도 당연히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현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쓰고 비판을 했다. 호남 목회자들이 모일 때도 우리가 앞장서서 사회주의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며 "저 역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J목사님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저는 정치적 욕망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고 전했다.

소 목사는 "저는 지금까지 교단과 교계 정치도 안 했고 오직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공익을 위해 일해왔다. 이은재 목사님이 제기했던 모든 부분은, 자신이 밝혔듯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에 대해 오해한 채 저를 공격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그는 "물론 이은재 목사님도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J목사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가짜정보에 의한 지나친 의협심이 과격한 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충성은 자칫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은재 목사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어서-비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격했지만-'쿨하게' 취하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서로 얻은 것이 많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먼저 저는 어느 누가 공격하고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이 목사님 역시 저를 공격해서 많이 유명해지셨다"며 "앞으로 이은재 목사님도 한국교회 공익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부디 기독교인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모두 코로나19를 이기시고 건강하시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은재 목사는 24일 전광훈 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유튜브를 통해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목회에 전념하겠다"며 한기총 비서실장과 대변인, 순국결사대 사령관직 사의를 밝혔다. 이대웅 기자

"내가 29일 광화문 집회를 반대하는 이유"

기독교 유튜브 채널 '책읽는사자'가 24일 '내가 29일 광화문 (야외) 집회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책읽는사자는 먼저 자신이 "극장을 대관해서 빛을 내면서까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전 목사가 주도하는 오는 29일 3.1절 국민대회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유튜브 채널 '책읽는사자'가 24일 '내가 29일 광화문 (야외) 집회를 반대하는 이유 ft. 그리고 대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책읽는사자 유튜브 캡쳐

그 이유 대해 그는 "(29일에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는 '생명'과 관련되므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의료정보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적 투쟁 안에서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다. 이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실시간 중계를 한 이 집회는 그동안 했던 집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토요일 집회를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집회를 하면 된다"고 했다. 책읽는사자는 "연사 분들만 모여서 체온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나오셔도 되고, 미리 녹화하고 업로드하면 된다"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는게 오히려 오프라인 집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목이 집중 됐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영상집회로 사무실이나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핵심인사만 하는게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그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비상식이라는 프레임"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기에 영상 집회로 전환하면 좌파가 공격할 수 잇는 '비상식이라는 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2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왔을 당시) 탔던 트럭에서 걸어서 1분 2분 거리에 서울시 관할의 세종문화회관 있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보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데 야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에게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그만하라고 이야기 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배구대회도 했다. 관객 점유율이 90퍼센트가 넘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급하게 (여기로) 뛰어 나와서 위험하다고 했는가? 안했다"고 했다. 전민수 기자

"구속, 법 빙자한 국가 폭력"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성명

'전광훈 목사 공동 변호인단'이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정권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반정부 집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터이고, 정권의 속성에 비춰 무슨 핑계로든 전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라며 "불과 2개월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후,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했다는 선거운동은 모두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 채증이 완료돼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며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전국적 인물이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돼 있어 도망이 불가능하다. 2개월 전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한 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김동현은 무엇을 근거로 도망의 염려를 인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대웅 기자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운데) ⓒ 뉴시스

진중권 "신천지 포교법, 주사파 운동권과 똑같아"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포교법은 주사파 운동권과 닮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민족해방(NL·National Liberation)운동권 중 일파가 그 문화와 멘탈리티를 그대로 차용해 종교화한 것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옛날 비합법 운동권과 닮았다"며 "신도들이 신분을 안 밝히는 것도 그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사이비 교단이 한때의 NL운동권의 발달한 정치적 노하우로 무장한 덕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애를 먹는 것도 신천지의 교단 운영이 정상적인 교회와 다르다기 때문"이라며 "신천지가 비합법적 형태로 정치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운동권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이야기했다.

진 교수는 "한국 기독교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마치 한국사회에서 북한 주체사상이 지금까지도 터부인 것처럼"이라며 "그래서 신천지가 정상적인 교회들과 달리 제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접근해 대상자를 세뇌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형구 기자

CJ CHEILJEDANG

속편한 양배추
맘편한 CJ제일제당

저온원심박막농축으로 맛까지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01 속편함의 대명사 양배추즙, CJ가 100% 국내산 양배추로 만듭니다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는 100% 국내산 양배추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껏 재배한 양배추만을 엄선한 것은 물론 함께 사용된 다른 원료까지도 모두 100% 국내산이라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는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까지 잡았습니다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과 냄새는 양배추에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디메틸설파이드가 그 원인입니다.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는 저온원심박막농축 기술로 양배추가 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을 잡았습니다.

03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고 액상과당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는 액상과당 대신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어 더욱 먹기 편한 맛에 안심까지 더했습니다. 저온원심박막농축으로 한 번! 사과와 매실로 또 한 번! 양배추즙의 맛과 목넘김의 새로운 차원을 선물합니다.

04 양배추와 함께 창출, 진피를 함께 담아 속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에는 양배추와 더불어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원료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옛 고서에서 속을 다스리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창출과 진피까지 더해 속을 더욱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 : 국산), 양배추착즙액(양배추 : 국산), 사과농축액(사과 : 국산), 케일농축액(케일 : 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 : 국산), 무우농축액(무 : 국산), 매실농축액(매실 : 국산), 창출진피혼합추출액(창출, 진피 : 국산)

2월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 상당의 CJ 인기식품 럭키박스 증정 (총 20명)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288-9988

추천 새앨범

코스타 예배팀 리더 박양원 “바보 같은 사랑” 싱글앨범 발매



KOSTA (Korean Student All Nations) 국제본부 예배팀 리더부터 여러 교회들에서 예배사역을 감당해 온 예배인도자 박양원이 2017년 데뷔 이후 세번째 싱글 앨범 "바보 같은 사랑"을 24일 출시했다.

"바보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무지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 표현하며 가사에 담아낸 곡이다.

박양원은 "곧 다가 올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곡의 고백처럼 주님 보이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앨범소개를 전했다.

이번 앨범을 듣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사를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작사 작곡을 모두 한 싱어송라이터 박양원은 "그런 사랑 아나요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나는 몰랐잖아요"라며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고 먼저 고백한다.

그리고, 박 리더는 "그 사랑을 아나요 끝없이 넘어져 절망하고 있을 때 늘 날 감싸주던 따스함이 있었단걸 그 사랑을 나는 모르잖아요"라며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한다. "하늘 저 멀리부터 시작된 사랑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그 사랑 온 몸에 상처와 그 피를 모두 흘리신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아나요 그 갈보리 언덕 날 위해 오르신 무지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이제야 나 알아요"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놀라운 주님의 바보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노래하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둔해진 신앙을 깨워주고 있다.

조요한 기자

투 미니스트리(To. Ministry), 6번째 싱글앨범 ‘별과 고래’ 발매



2017년부터 싱글앨범을 발표해온 투 미니스트리가 25일 6번째 싱글앨범 '별과 고래'를 발매했다.

투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하늘 끝과 바다 끝의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들의 기쁜 노래가 온 땅과 하늘에 영원히 울리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고 불렀다고 앨범소개를 통해 소개했다.

작사와 작곡은 노지현이 했고, 노래는 노지현, 이사랑, 정도현, 최성준이 참여했다. '별과 고래'는 별과 은하수, 우주와 바다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조요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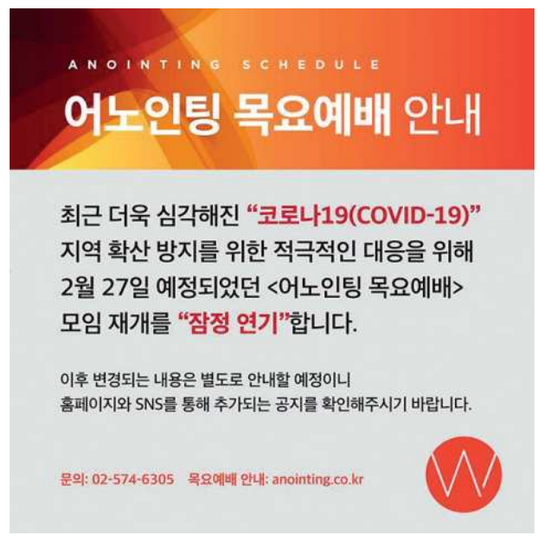
어노인팅 목요예배 잠정 연기… 예배학교는 조기 마감

어노인팅이 2월 27일에 재개하기로 했던 정기 목요예배를 잠정 연기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노인팅 목요예배 안내 관계자는 "어노인팅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코로나19(COVID-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월 27일 예정되었던 목요예배 모임 재개를 '잠정 연기'한다"며 "이후 변경되는 목요예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니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추가되는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노인팅 예배학교 2020 봄학기 모집은 많은 관심과 참가로 전 과정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봄학기 과정은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장충교회에서 열린다.

예배학교 관계자는 "어노인팅예배학교 (AWI; Anointing Worship Institute)는 매년 2회(봄/가을), 8주간의 예배팀 훈련 프래그램으로써 예배인도자, 싱어, 음향엔지니어 과정들을 개설하여 예배사역자들이 예배를 공교하게 도울 수 있도록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며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한 단일 프로그램으로 파트별 세미나 및 예배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 예배학교는 10월에 지원할 수 있다고 어노인팅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

조요한 기자

방송 편성표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오전	5:00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올림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00 CTS새벽예배-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30 생명의 말씀	00 생명의 삶 2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말씀의샘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꽃보다 목사 시즌2 30 복음강단 - 예수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6:00	00 TV 설교/[생명의 양식] 동숭교회 서정오 목사 30 달콤한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생명의 말씀-장상길 목사(송도주사랑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비전설교 대구동부교회 김서택 목사 30 비전설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00 2019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7:00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4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00 GOODTV 뉴스 20 은혜와 찬양 오륜교회 30 말씀의샘터 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힘내라! 고향교회2
	8:00	20 CBS성서학당:창세기 21강 - 신우인 목사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까?" (본문 - 창세기 6:1-7)	0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20 나침반 바이블 - 이희성 교수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0 내 폰안의 교회 10 말씀의샘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00 말씀의 창 -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 30 비전메시지 - 동탄하나교회 이석 목사
	9:00	10 새롭게 하소서:[하나님을 찬양하라! 2부]'윤희정, 김수연 모녀'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다음세대 종합구성	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4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 매일 주와 함께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40 샬롬, 이스라엘
	10:00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 뉴스	00 [생방송]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50 매일 무릎기도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0 금주의 말씀송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00 장학봉 목사의 통&톡 30 비전 월드미션
	11:00	00 올포원	00 [생방송] CTS 뉴스 50 어린이 찬양-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한 곡 감상하기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30 말씀의샘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오후	12:00	00 TV 설교/온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0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1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GOODTV 뉴스 20 능력의 기도 50 말씀의샘터 전주연세교회 박청일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3:00	20 CBS파워특강/CBS 파워특강	00 생명의 말씀-김진홍 목사(진주국제기도원) 30 4인 4색	0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20 비전설교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50 하늘양식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C채널 특집 다큐멘터리 예수님의 여정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14:00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현실판 사랑의 불시착]'김승근 목사, 박예영 이사장'	00 [생방송] 콜링갓 50 #클립CCM	20 생명의 삶 4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 관통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샬롬, 이스라엘
	15:00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7000미라클-땅끝으로 50 신앙에세이	30 선교하시는 하나님 - 다양한 선교적 접근 편	20 금주의 말씀송 40 문방구	00 긴급좌담 코로나19 "신천지의 실체"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16:00	00 CBS성서학당:누가복음 59강 - 송태근 목사 "검을 사라고?" (본문 - 누가복음 22:35-46) 50 어른성경학교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30 생명의 말씀-황웅식 목사(신애교회)	10 나는야 주의 어린이 4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10 멘토링코리아 40 황규식 목사의 기드온성경대학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스페셜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
	17:00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장애를 받아들이지만 장애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 신순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저자, 야나 미니스트리 이사장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빛으로 소금으로	20 케빈 드영의 감사하는 교회 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0 말씀의샘터 동양산영광교회 서신혜 목사 40 꿈의교회 드림워십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10 나를 살리는 찬송 30 TV 설교/대전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4인 4색	3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0 행복한TV	30 말씀의 창 - 선교중앙교회 곽태권 목사
저녁	19:00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 30 TV 설교/동탄하나교회 이석 목사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다시 만나는 장경동 목사의 비행기	10 [말씀] 서정오 목사(동숭교회) 50 GCM 복음도시운동 세미나	00 조용기목사의 행복으로의 초대	00 복음강단 - 영통영락교회 고흥식 목사 30 꽃보다 목사 시즌2
	20:00	00 올포원	20 글로벌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3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말씀의샘터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30 황덕영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40 말씀의 창 -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
	21:00	00 CBS성서학당:창세기 21강 - 신우인 목사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까?" (본문 - 창세기 6:1-7) 50 CBS 뉴스	00 생명의 말씀 30 생명의 말씀-박형준 목사(순복음평택중앙교회)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저스트 텐 미닛 <워러브>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00 비전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GOODTV 뉴스 50 이영훈목사의 글로벌설교	1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22:00	10 더 바이블	00 CTS 뉴스	00 데이비드 플랫의 시크릿 처치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말씀의샘터 신촌성결교회 50 TV데일리큐티 나무향기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장학봉 목사의 통&톡
	23:00	10 새롭게 하소서:[하나님을 찬양하라! 2부]'윤희정, 김수연 모녀'	00 신앙에세이 00 7000미라클-땅끝으로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10 교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라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00 장상길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50 은혜와 찬양 오륜교회	00 긴급좌담 코로나19 "신천지의 실체"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24:00	00 TV 설교/꿈의 강단 50 나를 살리는 찬송	00 콜링갓 50 어린이 찬양-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한 곡 감상하기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박성심 사모의 연애, 결혼, 가정	00 말씀의샘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김자현 목사의 성경강해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이태원의 I Love Jesus 30 <교회행전> 나의 고백 10minutes 50 TETELESTAI | 테텔레스타이	40 미니콘서트 쉼 50 나침반 플러스 -사랑-	00 은혜와 진리의 성경강해 박준형 목사 30 글로벌 투데이	00 새에덴강단
	2:00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2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 50 #클립CCM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이단사이렌	00 말씀의 창 -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40 성지가 좋다
	3:00	00 더 바이블	00 Let's Talk in English 20 매일 무릎기도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0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3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00 주일예배실황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	00 분당우리교회 주일예배
	4:00	00 CBS성서학당:요한복음 2강 - 김기석 목사 "생명의 빛" (본문 - 요한복음 1:1-5) 50 CBS 교회소식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 말씀-곽선희 목사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은혜와 찬양 연세중앙 2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0 TV데일리큐티 나무향기	00 매일말씀 1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찬양칼럼

예배의 시작과 끝, 찬양대

정택은
감리교교육목회자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성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흥의 원동력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배는 크게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구분된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듯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

찬송이나 찬양은 하나의 기도이다. 다만 기도에 가락을 붙였을 뿐이다. 찬송이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수단이다. 찬양은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찬양의 일차적인 기능은 회중을 예배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다음으로 보다 깊은 영적인 사색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회중에게 삶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게 해준다.

예배음악의 기본원칙

예배음악이 갖는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성숙한 예배음악 지도자는 인간의 상한심령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며, 자신을 회중 앞에서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글라스(Winfred Douglas)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예배음악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예배음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배음악은 종교적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세속적 예술성은 기교와 철학사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종교적 예술성은 신성, 경건, 신앙간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역사에서 본 찬양대

구약시대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성하여 수준 높은 성전음악으로 이끌어 올린 공헌자는 다윗이다. 그는 공식적인 예배에 찬양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임명한 것에 대해 역대상6:31-48에 언급되어 있다. 그 당시 성전예배시에 찬양의 직무를 행한 인물은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이었다. 역대상 23:3-6에는 레위 자손의 구분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천명의 성가대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역대상25: 1-8에는 다윗이 성가대를 체계적인 24반열로 조직하고 찬양에 익숙한 자 288명을 선정해서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봉헌 때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을 통해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로 볼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찬양과 악기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규모 또한 오늘날과 견주어 손색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찬양대의 목적과 임무

찬양대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양을 드리는 기관이다. 이러한 찬양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성도보다 수준 높은 음악성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음악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찬양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찬양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찬양대원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뒤따르게 된다. 즉 믿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을 드리는 자여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찬양대원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찬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찬양으로 인하여 감화를 받고 찬양대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찬양대원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임무는, 첫째 찬양대원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자로서 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찬양대원들은 예배자임과 동시에 성도들 중에서 선택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예배의 순서와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찬송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을 더욱 친밀하게 하는 고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가져야 한다. 셋째, 찬양대는 음악을 통해 성도들에게 찬송을 바르게 지도하고 새로운 찬송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찬양대의 자격

우선적으로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앙을 가진 자라 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를 일컫는다. 또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다.

흔히 찬양대를 교회의 얼굴이라고 한다. 이것은 찬양대원들의 신앙적인 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보고 하는 말이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대는 많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찬양대는 회중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다. 즉 찬양 드리는 모습과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심지어는 옆 사람과 잡담하는 것까지도 한 눈에 보이므로 찬양대원들의 행동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찬양대는 그 수준이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음악가 중 교회 찬양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교회 찬양대는 음악의 중심이 되어오고 있다. 교회마다 실력 있는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음악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들이 많음에 감사함과 아울러 음악적 기교 이전에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적 신앙을 갖춘 온전한 신앙인이 우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해진,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재능기부

중국 우한도 응원

한류스타 박해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나섰다.

25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박해진은 23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서 마련한 '국민예방 코로나19 안전수칙' 영상 촬영에 재능 기부했다. 제작비까지 전액 부담하며 '선행 천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소방청 대국민 화재안전수칙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재능기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다. 영상에서 박해진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기 ▲의료기관과 공공장소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버릴 땐 규정대로 묶어서 안전하게 버리기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또 "감염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나 1339로 문의하고, 예방수칙을 지켜 나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키는데 협조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 예방수칙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진은 중국 우한을 응원하는 영상도 함께 제작했다. "코로나19 공포에 사로잡힌 국민들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모든 분들의 쾌유와 안전을 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소방관들께 감사드린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나와 타인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해진은 KBS 2TV 수목극 '포레스트'에 출연 중이다. 5월 방송예정인 MBC TV 새 수목극 '꼰대인턴' 촬영에 한창이다.

최지우 기자



배우 박해진 ⓒ마운틴무브먼트 제공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소외계층 아동 위해 기부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4일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씨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감염예방물품 구매비용 2천 4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평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사배 씨의 이번 기부로 재단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1,500여 개를 구입해 지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의 따듯한 마음을 담은 후원금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코로나 19 감염예방물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부가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물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민수 기자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초록어린이우산재단에 감염예방물품 구매비용 2천 4백만원을 기부했다 ©이사배 SNS 캡쳐





*S마크 검사기준(SC-9390-01)으로 시험하였습니다.(표준코스+고온행궁)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치로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